

# 공중을 날아가는 천사들

다른(넷째) 천사의 기별



현대진리연합운동

[www.PTUM.org](http://www.PTUM.org)

# 목 차

## 서 문 \_ 3

- 제 1 과 **충성스런 남은 무리** \_ 5
- 제 2 과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 \_ 13
- 제 3 과 **불로 연단한 금** \_ 21
- 제 4 과 **흰 옷** \_ 28
- 제 5 과 **안약** \_ 37
- 제 6 과 **1888년 대총회의 배경** \_ 45
- 제 7 과 **1888년 대총회** \_ 55
- 제 8 과 **큰 외침의 시작** \_ 64
- 제 9 과 **또 다른 천사의 경고** \_ 72
- 제 10 과 **셋째 천사의 기별에 힘과 능력을 줌** \_ 79
- 제 11 과 **참된 셋째 천사의 기별** \_ 88
- 제 12 과 **거룩한 신임장** \_ 96
- 제 13 과 **성결의 열매** \_ 104
- 제 14 과 **역사로부터 배울 교훈** \_ 112
- 13째 안식일 특별연금 **외방선교사업** \_ 121

# 서 문

이번 기 안식일 성경교재는 계시록 18장의 “다른 천사”(넷째 천사)의 기별에 관하여 연구해보고자 한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계 18:1)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다른 천사를 계시록 14장의 언급된 세 천사의 기별이 후에 이 땅에 내려오는 천사이기에 편의상 넷째 천사라고 부르게 된다.

재림 신앙을 가진 성도들 사이에서 계시록 18장 천사에 관한 서로 다른 견해 때문에 논쟁이 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진리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시대에 적합한 진리를 증거하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모든 사람은 반대를 당하게 되어 있다. 루터의 시대에는 그 시대에 특별히 요긴한 현대 진리가 있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교회에도 현대 진리가 있다. 모든 것을 당신의 뜻을 따라 행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다양한 환경 아래 두시고, 그들이 생활하는 시대와 그들이 처한 상황에 적합한 의무들을 수행하기를 바라신다. 만일 그들이 받은바 진리를 존중할 것 같으면, 더욱 넓은 진리의 시야가 그들 앞에 열려질 것이다. 그러나 진리는 법왕교도들이 루터를 반대했던 것처럼 오늘날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오늘날도 옛날처럼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사람들의 이론과 전설을 받아들이는 동일한 경향이 있다. 이 시대를 위한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들은 초기의 개혁자들보다 더 큰 환영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진리와 오류, 그리스도와 사단과의 대쟁투는 이 세상 역사의 종말이 가까울수록 더욱 격렬해질 것이다.”(쟁투, 143)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진리가 현대진리인데, 지난 3기 동안 연구한 세 천사의 기별이 현대진리라고 하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연구하게 될 “넷째 천사의 기별”이 현대진리인가 하는 데는 의구심을 갖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 시대의 가장 결정적인 중대한 질문은 ‘누가 여호와의 편에 있는가? 누가 이 세상에 진리의 기별을 전하기 위하여 그 천사와 연합할 것인가? 누가 그 영광으로 온 땅을 환하게 할 빛을 받아들일 것인가?’이다.”(리뷰,

1889.11.5)

그런데 온 땅을 환하게 할 천사가 장래에 올 것이 아니라, 이미 왔다고 선지자는 말씀하셨다.

“시련의 시기가 우리에게 임박하였는데 이는 죄를 사유하시는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심으로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온 땅을 영광으로 환하게 할 천사의 빛의 시작이다.”(1기별, 362; 1892년)

이번 연구를 통하여 계시록 18장 천사에 관하여 확실히 이해하고 그 천사와 연합하여 주님의 편에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현대진리연합운동 편집부

## 충성스런 남은 무리

[연구범위]

교회증언 3권, 265~271; 교회증언 5권, 75~84.

기억절 :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는 나라”(롬 11:5).

서론 : “매 시대마다 주께서는 그의 파수꾼들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들은 저희가 살았던 세대에 충성스럽게 증언을 전하였다. 이 파수꾼들은 경고의 기별을 전하였으며, 그들이 갑옷을 벗고 물러날 때는 다른 사람들이 그 일을 대신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이 증인들과 언약 관계를 맺으셨고 지상의 교회를 하늘의 교회와 연합시키셨다.”(행적, 11)

### 언약 관계

1. 유대민족은 영적 “포도원”으로서의 위치를 어떻게 상실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누구에게 또한 어떤 조건으로 옮겨졌는가?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경고가 되는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마 21:43)

눅 12:32.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지도받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지혜롭고 구원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의로우며,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광이 필요 없을 정도로 큰 영광을 가졌다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구주께서는 그들이 남용한 특권과 그들이 경시한 사업을 그들에게서 거두어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셨다.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야 했고 당신의 말씀은 입증되어야 하였다.”(행적, 16)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저희는 버림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 대신에 다른 백성들을 부르셨다. 만일 이들 역시 신실하지 않을 것 같으면 어찌 그들처럼 버림을 받지 않겠는가?”(실물, 304)

2. 성경은 교회에게 “포도원”으로서의 자격이 아무 조건도 없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이 원칙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시대에도 적용되는가?

“웁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하므로 꺾이우고 너는 믿으므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엄위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엄위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롬 11:20-22)

“주 예수님께서서는 항상 당신을 섬길 택하신 백성을 가지고 계실 것이다. 유대인들이 생명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거절했을 때, 그분께서는 저들에게서 하나님의 왕국을 빼앗아 이방인들에게 내어주셨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원칙 하에서 당신의 모든 사업을 지속시켜 나가실 것이다. 교회가 주님의 말씀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것이 입증될 때, 그들의 지위가 어떠한지, 그들의 부르심이 얼마나 고귀하고 거룩한지 상관없이 주님께서서는 더 이상 저들과 함께 일하실 수가 없다. 그 대신 다른 사람들이 선택되어 그 중요한 책임을 맡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도 그들의 생애에서 모든 나쁜 행위를 고치고 그들의 모든 행동에 순수하고 거룩한 원칙을 확립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서는 저들에게 큰 고통을 주어 그들을 낮추실 것이다. 그래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자리는 빼앗기고 그들을 책망하실 것이다.”(하늘을 향하여, 131)

“형제들이여, 만일 그대들이 지금까지 해온 바와 같이 계속적으로 게으르고, 세속적이고, 이기적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대들을 지나쳐 버리시고 자아 보호에 대한 관심이 적고 세속적인 명예에 대한 야망이 작은

자들과, 그들의 주님처럼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기를 주저하지 않을 사람들을 택하실 것이다. 그 사업은, 그것을 감당할 자들, 그것을 높이 평가할 자들, 그 원칙을 그들의 매일의 경험 속에 조화시킬 자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스스로를 존중하고 앞세우기보다는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사업을 발전시키고자 노력하는 겸손한 사람들을 택하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세상의 지혜는 많이 갖지 못했지만 하늘로부터 힘과 권면을 구할 자들을 일으키실 것이다.”(5증언, 461; 1885년)

## 선행조건

### 3.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어떤 상태를 용납하실 수 없는가?

“여호와와 그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사 59:1, 2)

.....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성령을 통하여 죄인들의 각성과 회개를 위하여 크게 역사하고자 하신다. 그러나 그분의 거룩한 계획에 의거하여, 그 사업은 그분의 교회의 기구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교인들이 그분에게서 너무 멀리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그분의 뜻을 이룰 수 없다.”(5증언, 189; 1882년)

“제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의 명칭으로 한 무리가 나에게 계시로 나타났는바, 저희는 우리를 독특한 백성으로 만드는 깃발이나 표징을 유별나게 내세울 필요가 없다고 권고하고 있었으며 저들은 우리 기관들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2기별, 385; 1896년)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도록 세상을 지도하는 대신에 교회가 불법을 통하여 세상과 점점 더 가까이 연합하고 있다. 날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 변해가고 있다.”(8증언, 119; 1903년)

### 4. 대다수가 공개적으로 배도했지만, 그것에 대하여 회개하기를 거절할 경우, 주님께서서는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는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 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었으리로다”(사 1:9)

롬 9:27.

---

“큰 빛을 가졌던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감사하며 증진시키는 것이 그들이 행할 특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들은 진리를 실천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주님께서서는 그들이 받은 바 모든 빛에 따라 살아 온 자들을 이끌어 들이실 것이다. 그리고 진리를 이해할 기회와 특권을 가졌으나 그 원칙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은 스스로 전진하다가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흔들려 떨어질 것이다. 그들은 행위에서 진리의 원칙을 부인할 것이며 하나님의 사업에 비난을 가져올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들을 그분의 입에서 토하여 내치시고 그들 자신의 행동을 따라감으로 스스로 구별되도록 버려두실 것이라고 선언하셨다. 이 행동은 진정 그들을 불충성한 청지기로 두드러지게 할 것이다.

받은 바 빛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 주님께서서는 받은 바 빛에 따라 행해 온 자들에게 그분의 기별을 주실 것이며 하나님의 평가에 따라 그들을 진실하고 충성스럽다고 인정하실 것이다. 이 사람들은, 빛과 지식을 가졌으나 주님의 길로 행치 아니하고 그들 자신의 거룩하지 못한 마음의 상상을 따라 행한 자들의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3기별, 421, 422; 1898년)

## 적은 무리

5.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교회들 안에 있는 충성된 영혼들을 위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또 이 우리에게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요 10:16)

---

“바벨론을 구성하고 있는 교회들 내에 존재하는 영적 암흑과 하나님께로부터의 분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단체 안에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큰 무리가 여전히 남아 있다. 그들 중에는 이 시대를 위한 특별한 기별을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또한 많은 사람은 그들의 현 상태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더욱 밝은 빛을 갈망하고 있다. 그들은 자기들이 속해있는 교회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찾고자 헛된 노력을 하고 있다. 그 단체들이 진리에서 점점 멀리 떠나가게 되고, 동시에 세상과 더욱 밀접히 결합됨에 따라 두 계급의 차이는 더욱 커져서 마침내 완전히 분리되고 말 것이다.”(쟁투, 390)

“빛이 비추일 때 모든 신실한 자들은 타락한 교회를 떠나 남은 무리와 함께 설 것이다.”(초기, 261)

6. 재림교인들 가운데 충성된 소수의 무리는 그들의 교회 안에 있는 죄를 보고 어떻게 할 것이 예언되어 있는가?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겔 9:4)

.....

“하나님의 능력 외의 어떤 것도 악인들과 연합한 사단의 오만을 중단시킬 수 없다. 그러나 교회가 가장 큰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충성된 남은 자들은 교회를 위하여 가장 열렬한 기도를 드리게 될 것이며, …”(5증언, 524)

## 왜 울며 탄식하는가?

7. 충성된 적은 무리가 바라는 바는 무엇인가? 그들은 왜 울며 탄식하는가?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약 5:19, 20)

.....

“이 탄식하고 부르짖는 자들은 생명의 말씀을 설교해 왔었다. 그들은 책망을 하고, 권면을 하고, 권유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 온 어떤 자들은 회개하고 그분 앞에서 그들의 마음을 낮추었다. 그러나 여호와의 영광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갔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종교의 형식은 여전히 지속하고 있을 지라도 그분의 능력과 임재는 결핍되어 있었다.”(5증언, 210)

8. 바울은 어떤 의미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했는가?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나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롬 11:1, 5)  
롬 11:2~4.

“모든 사람이 흔들거리는 육적 안전의 요람에서 잠들어 있지는 않을 것임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시대의 징조를 식별하는 성실한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현대 진리를 믿노라고 공언하는 많은 수의 사람들이 행동으로써 그들의 믿음을 부인하고 있는 동안, 끝까지 견딜 얼마간의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5증언, 10)

## 하나님의 약속은 조건적인 것임

9.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약속을 그릇되게 해석했다. 동일한 잘못이 삼중기별을 믿는 재림신도들에게 어떻게 반복될 수 있는가?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롬 15:4)

“하나님의 율법이 그 마음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은총이 약속되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연합한 자이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에게서 떠났다. 그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고통을 겪고 있었다. 그들이 이방 나라에 잡혀 가서 종살이 하게 된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 그들의 마음은 범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졌으며 과거에 여러번 주께서 그토록 큰 은총을 나타내 보여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죄를 변명했다. …

이런 일들은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고전 10:11)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그릇되게 해석하고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선행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다고 자만하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소망, 106)

“축복과 저주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놓여 있다. 그러므로, 그들이 세상에서 나와서 세상과 분리되어 겸손하게 순종의 길을 걸을 것 같으면 축복을 받고, 그들이 고상한 하늘의 요구를 짓밟는 우상 숭배자들과 연합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 반역한 이스라엘의 죄와 불의가 기록되어 그 상황이 우리 앞에 하나의 경고로 주어져 있는 이유는, 우리가 만일 그들의 범죄의 본을 따르고 하나님을 떠나면 분명히 그들처럼 넘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 주기 위함이다.”(1증언, 609; 1867년)

## 10.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어떤 말씀들이 현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경고가 되고 있는가?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관계 없는 것으로 여기도다”(호 8:12)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호 4:6)

대하 15:2.

---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에 유의하지 아니하고 지나쳐 버릴 것인가? 봉사 기회를 이용하지 않을 것인가? 세상의 조롱, 교만심과 사람의 풍습과 유전을 본받는 정신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을 사로잡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할 것인가? 그들이 유대 나라 지도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결과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오늘날의 교회가 경고를 받을 것인가?”(실물, 306; 1900년).

## [상고할 말씀]

“나는 참된 증인의 증거가 절반도 주의를 끌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교회의 운명이 달려 있는 이 엄숙한 증거가 전적으로 무시당하거나 가볍게 평가되고 있다. 이 증거는 깊은 회개를 불러일으킬 것인데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인 모든 자들은 순종하여 자신을 순결하게 할 것이다.

‘들어보라!’고 천사가 말하기에 곧 귀를 기울였더니 많은 악기소리와 같이 완전한 곡조로 감미롭게 조화된 소리를 들었다. 나는 일찍이 이런 음악을 들어 본 적이 없는데 그 소리는 자비와 동정이 총만하고 거룩한 기쁨을 자아내는 것 같았다. 나의 온 몸이 짜릿한 감동을 느꼈다. 다시 천사가 ‘보라!’ 하기에 나는 조금 전에 보았던 무리들에게 눈을 돌렸다. 그들은 크게 흔들림을 당하고 있었다. 나는 또 전에 보았던 심중에 고민하면서 울며 기도하던 자들을 보았다. 그들을 지키는 천사들은 두 배로 증가되었고 그들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갑옷을 입고 있었다. 그들은 군인들처럼 매우 질서있게 움직였다. 그들의 용모는 그들이 겪은 혹심한 갈등과 통과해 온 번민으로 인하여 겪은 투쟁을 말하여 주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얼굴은 혹심한 내적 고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늘의 빛과 영광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들은 마침내 승리했으며 깊은 감사와 거룩한 기쁨으로 총만해 있었다.

이 무리의 수효는 점점 줄어들었고 어떤 이들은 흔들림을 받아 정로에서 떨어져 나갔다. 오래 참고 고민과 간구를 통해 그 고귀한 승리를 쟁취한 자들과 연합하지 아니한 부주의하고 무관심한 자들은 승리를 얻지 못하고 어두움 가운데 버려진 바 되었다. 그들 대신 진리를 붙들고 그 대열에 참여했던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자리를 채웠다. 악한 천사들이 아직도 그들 주위를 서성거렸으나 그들을 어찌할 수 없었다.”(초기, 270, 271)

#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

[연구범위]

교회증언 3권, 260~272; 1888년 자료집, 352~381.

**기억절** :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 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행 3:19).

**서론** : “유쾌하게 되는 일 혹은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일, 곧 육체와 정신의 온갖 더러움에서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이루는 일을 함으로써 스스로를 준비한 자들에게만 이르러 온다.”(1증언, 619)

## 질병과 치료

1. 라오디게아 교회가 처한 상태, 곧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은 무슨 의미인지를 설명해보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계 3:17)

애 1:8; 사 64:6.

“벌거벗은 수치와 부끄러움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자기의 의를 입고

있는 수치이며, 모든 사람이 다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를 해 놓으셨는데도 자신을 하나님과 분리시킨 수치이다.”(화잇주석, 계 3:18)

“부요하고 재물이 증가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가난하고 벌거벗은 상태로 되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의’의 부재이다. 우리 자신의 의는 더러운 옷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와 같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고 있다고 스스로 자랑한다. 이보다 더 큰 기만이 있겠는가?”(리뷰, 1894.8.7)

2.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영적 질병을 치료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무엇을 제공하시는가?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계 3:18)

.....

“예수께서 우리를 보고 자기에게서 사라고 하시는 금은 불로 연단한 금이다. 그것은 믿음과 사랑이라고 하는 금이며, 그 속에는 찌꺼기가 하나도 섞여있지 않다. 흰 옷은 그리스도의 의이며,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혼인 예복이다. 안약은 우리들에게 매우 부족한 참된 영적 식별력이다. 왜냐하면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야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이다(리뷰 1890.4.1).”(화잇주석, 계 3:18)

## 1888년 대총회

3. 1888년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그리스도 우리의 의의 기별은 교회당국 자들에 의하여 어떻게 받아들여졌는가?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이가 있느냐”(요 7:48)

답후 3:5, 7.

.....

“선입 관념을 굽히고 이 진리를 받아들이기를 꺼려하는 마음은 주로 미네아 폴리스 총회에서 [E. J. 와그너]와 [A. T. 존즈] 두 형제를 통하여 주님께서 보

내신 기별을 반대한 정신에 다분히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사단은 반대하는 정신을 자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시고자 하신 특별하신 능력을 우리 신자들에게서 빼앗는 데 성공하였다. 원수는 사도들이 오순절 이후에 진리를 선포한 것처럼 저들이 온 세상에 진리를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얻지 못하게 길을 막아 버렸다. 진리의 영광으로 온 땅을 환하게 비출 빛이 거절당하였으며 우리 형제들 스스로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어느 정도 세상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 막히고 말았다.”(1기별, 234)

“나는 세계 대총회에 모일 우리 형제들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기별에 주의하기를 간청하는 바이다. 그들이 얼마나 눈먼 상태에 있는가! 이 주제 [1888년 기별: 역자주]은 그대들이 주목하도록 반복해서 주어지고 있지만, 그대들의 영적 상태와 함께 그대들의 불만을 볼 때 개혁하기에 충분할 만큼 심각하거나 고통을 주지 못하고 있다. [계 3:17 인용] 자기 기만의 죄가 우리 교회들 안에 있으며 많은 사람들의 종교적 생명은 가짜이다.”(원고철 16권, 108; 1892년)

#### 4. 참된 증인의 권면은 왜 자주 삼중기별을 믿는 신자들에 의해 거절당하는가?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므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요 3:19, 20)

렘 17:9.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죄를 그들 앞에 제시하는 경고와 견책에 의해 자주 간섭을 당하므로 초조와 질투를 느낀다. 참된 증인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라고 말씀하신다. 동기, 목적, 불신, 의심, 그리고 질투는 사람에게는 숨겨질지 모르나 그리스도에게는 숨겨지지 않는다.”(3증언, 256)

“백성들은 죄악 중에 잠자고 있다. 그들은 계속하여, 스스로 부요하므로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선포한다. 많은 사람들이 질문한다. ‘왜 이 모든 책망이 주어지는가? 증언은 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배역과 통탄할 죄가 있음을 지적하는가? 우리는 진리를 사랑한다. 우리는 변영하고 있다. 우리는 이 경고와 책망의 증언들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불평자들로, 그들의

마음을 살펴보고 그들의 생애를 성경의 실제적인 교훈과 비교해 보게 하라. 하나님 앞에 그들의 영혼을 겸비하게 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은혜로 어둠을 비추게 하라. 그러면 눈에서 비늘이 떨어져, 자신의 진정한 영적 가난과 곤고를 깨닫게 될 것이다.”(3증언, 254)

## 긍정적인 반응

5.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은 받아들이는 자들 가운데 무엇이 성취되도록 계획되었는가?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행 3:19)

.....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각성시키고, 그들의 배교를 깨닫게 하고, 열렬한 회개를 하게 함으로 그들이 예수님 앞에서 은총을 받고 셋째 천사의 큰 외침에 적합한 상태가 되게 하고자 계획되었다.”(1증언, 186)

“그리하여 사도 베드로가 기대했던 ‘유쾌하게 되는 날’(행 3:19) 이 이를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조사심판 때에) 너희 죄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행 3. 20)라.”(쟁투, 611; 1888년판)

6. 하나님께서는 라오디게아에 보내는 참된 증인의 권면을 받아들이는 자들을 어떻게 한 계단씩 계속해서 인도하시는가?

계 3:20.

.....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한 계단씩 계속해서 인도하신다. 그분께서는 마음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여러 가지 점들을 그들에게 제시하신다. ... 어떤 사람들은 한 가지 점을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다른 점을 그들에게 제시하시면,

그들은 위축되어 뒤로 물러선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이 그들에게 있는 어떤 이상과 직접적으로 상치되어 있음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그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내쫓은 무엇이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그들은 무엇인가를 진리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사람들은 그들의 이상을 버리고 참된 증인의 권고에 유의할 것인지의 여부를 깨닫기 위하여 일정 기간에 시험을 받고 증거를 받게 된다. 만일, 어떤 사람들이 진리를 순종함으로 순결해지지 않고 그들의 이기심과 교만과 악한 정욕을 극복하지 않을 것 같으면, 하나님의 천사들은, ‘그들이 이상과 연합하였으니 홀로 있게 버려두라’는 명령을 받게 된다. … 그러나, 모든 과정을 통과하고, 모든 시험을 견디고 이긴 자들은 어떠한 대가도 감수하고 참된 증인의 권고에 유의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낮은 비를 받고 승천하기에 합당한 자들이 될 것이다.”(1증언, 187)

## 회개와 자백

7. 무엇이 우리의 가장 긴급한 필요인가? 무엇이 회개이고 또한 무엇이 개심인가? 무엇이 성령의 역사인가?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호 12:6)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계 3:19)

시 51:10~13.

“하나님께서서는 참된 회개와 개혁이 없는 자백을 받아 주시지 않으실 것이다. 생애에 결정적인 변화가 있어야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 이것이 진정으로 죄를 슬퍼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정로, 39)

“성령의 강력한 힘이 인간 대리자의 품성 속에 완전한 변화를 일으켜서 그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다. 어떤 사람이

성령이 충만해졌을 때 그가 심한 시련과 시험을 당하면 당할수록 그만큼 더욱 분명하게 그는 그리스도의 대리자임을 입증한다. 영혼 속에 있는 평화가 얼굴에 나타난다. 말과 행동은 구주의 사랑을 나타낸다.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고 자 애쓰지 않는다. 자아를 포기하고 그가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 위에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적힌다.”(화잇주석, 엠 4:30)

8. 그리스도께서는 회개와 개심이 없이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음을 어떻게 가르쳐주셨는가? 무엇이 부흥과 개혁의 차이점인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눅 13:5)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마 18:3)

요 3:3.

“신앙 부흥과 개혁 사업은 성령의 조력을 힘입어 이루어져야 한다. 신앙 부흥과 개혁 사업은 별개의 것이다. 신앙 부흥이란 영적 생애를 소생 및 부흥시키는 것이며 정신력과 마음의 힘을 일깨워주고 영적 사망에서 부활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혁 사업은 재조직, 사상과 이론의 변화 및 습관과 제도의 개선을 뜻하는 것이다. 개혁 사업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신앙 부흥과 연결되어 있지 않는 한 의의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신앙 부흥과 개혁사업은 각기 맡은 분야를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을 수행하는 가운데 이 두 가지를 잘 혼합하여야 한다(1902년 2월 25일, 리뷰 앤 헤랄드).”(1기별, 128)

##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9. 교회의 운명이 참된 증인의 권면을 받아들이는 데 달려있으므로, 예수께서는 교회의 사자에게 어떤 강력한 호소를 하시는가?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계 3:19)

“나는 참된 증인의 증거가 절반도 주의를 끌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교회의 운명이 달려 있는 이 엄숙한 증거가 전적으로 무시당하거나 가볍게 평가되고 있다. 이 증거는 깊은 회개를 불러일으킬 것인데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자들은 순종하여 자신을 순결하게 할 것이다.”(초기, 270)

“하나님의 불쾌하심과 심판이 저희 자신의 길로 행하기를 고집하고 자기를 사랑하며 사람들의 칭찬을 좋아하는 자들에게 임할 것이다. 저들은 이 마지막 날의 사단의 기만에 틀림없이 휩쓸려 들어갈 것인데 왜냐하면 저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 참된 증인은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는 훈계를 들을 것이다.”(리뷰, 1890.12.23)

## 10. 참되고 진정한 회개에는 어떤 증거가 나타나는가?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사 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눅 19:8, 9)  
겔 33:14~16.

“개혁이 따르지 않으면 참된 회개가 아니다. 죄인이 서약한 것을 이행하고, 도둑질한 것을 돌려 주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과 동료 인간을 사랑하게 되면 그는 하나님과 화친한 증거를 보인 셈이다. 이전에 있었던 종교적 각성에 뒤따랐던 결과들은 이러하였다.”(쟁투, 462)

“많은 사람들은 진정한 회개를 이해하지 못한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죄를 지은 것을 후회한다. 그들은 그들의 잘못이 자기들에게 고난을 초래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들의 비행을 고치기도 한다. … 발람은 그의 앞에 칼을 들고 서 있는 천사를 보았을 때 두려워했다. 그는 ‘내가 죄를 지었다’ 고 말했다. 그는 생명을 잃어버릴 것을 두려워했다. 그러나, 그는 죄를 진정으로 슬퍼하

지는 않았다. 그는 자기의 마음을 바꾸거나 그가 하고자 계획한 일을 가증히 여기지도 않았다.”(정로, 23)

## [상고할 말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처럼 진리의 단순성을 유지하지 않음으로 서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 이런 단순성이 밀려 나가고 형식과 의식을 그리고 기계적인 사업에서 바빠 돌아가는 일 등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말았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공언하는 사람들의 교만과 뜻뜻미지근함이 하나님 눈 앞에 불쾌히 여기게 만들어 버렸다. 교만과 자존심과 만족감에 취한 독선이 가난하고 벌거벗은 영혼을 가리우고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사실 그대로 드러내신다.”(리뷰, 1894.8.7)

“영적 사물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었다. 외양과 기계적인 체계가 능력인 것처럼 높여지고 있는 반면 참된 선행, 고상한 경건, 심령의 거룩함 등의 미덕들은 이차적인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있다. 첫째로 되어왔어야 할 것들이 마지막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되었다.”(리뷰, 1894.2.27)

“다섯 사람의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이것은 성경 진리의 지식을 말함)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리스도의 은혜는 가지고 있지 않았다. 날마다 그들은 짜여진 의식과 외적인 의무를 준행하고 있었으나 그들의 봉사는 생명이 없고 그리스도의 의가 결핍되어 있었다. 의의 태양이 그들의 마음과 정신을 비추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리스도의 생애와 품성, 형상과 표적을 굳게 해 주는 진리의 사랑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 은혜의 기름이 그들의 활동에 섞이지 않았다. 그들의 종교는 참된 핵심이 없는 마른 껍질이었다. 그들은 교리의 형식을 굳게 붙들었으나 그들의 그리스도인 생애에서는 기만당하여 독선이 가득하고 만일 그들이 배웠다면 구원받을 만큼 지혜롭게 해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교훈을 배우지 못했다.”(리뷰, 1894.3.27)

## 불로 연단한 금

[연구범위]

실물교훈, 116~121; 초기문집, 46~48.

기억절 :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  
고”(계 3:18)

서론: “크신 구주께서는 자기 자신을 하늘의 상인으로 묘사하였다. 그는 귀중  
품들을 가득 싣고 이집 저집 다니시면서 호소하시고 그의 값진 상품들을  
내어 놓고 사라고 하신다(리뷰 1889.7.23).”(화잇주석, 계 3:18-20)

### 하늘 상인

1. 참된 증인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권하는 첫 번째 상품은 무엇인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계 3:18)

“믿음과 사랑은 진정한 부이며, 정금인데, 이것은 참된 증인께서 뜻뜻미지근한 사람들에게 사라고 권고하는 것이다. 세상 보화에 있어서 우리가 아무리 부유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부는 뜻뜻미지근하다고 불리는 질병을 고칠 수 있는 귀한 치료제를 우리로 하여금 살 수 있게 하지 못한다. 지성과 세상의 부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결함을 제거하는 데 무력하며, 또한 그들의 비참한 형편을 고칠 힘이 없다.”(4증언, 88)

2. 비록 하늘 상인이 갈바리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분 자신의 신실성을 풍성하게 증거해 보이셨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의심하고 그분이 주시는 것을 거절하고 있는가?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마 14:31)

---

“하늘 상품이 우리 교회들에게 제시되어 있다. 각 사람은 주님의 초청에 대하여 결정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대는 혹시 다음과 같이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날카롭고 결정적인 이 말씀은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들은 아니다. 비록 나는 어떤 이들이 갖고 있는 바와 같은 그런 모든 열성과 열심은 갖고 있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나는 영적으로 꽤 좋은 상태 가운데 있다. 나는 진리를 믿는다. 이 기별에 해당되는 사람들도 진리를 가졌을지 모르지만 어떤 이들은 이 기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그런 이유를 붙이는 그대여, 그대가 바로 기별을 받아야 할 바로 그 사람임을 분명히 알라. 값진 하늘 상품이 그대 앞에 공개되어 있는 동안에 그대가 잃어버린 것을 사라. … (편지 30a, 1892).”(화잇주석, 계 3:18)

## 가련함의 증거

3. 하늘의 금이 참으로 필요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묘사해보라.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막 4:17)

---

“나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섭리를 주목하게 되었는데, 그리스도인임을 공언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시련, 곧 연단시키고 순결하게 하는 과정을 통해 시련이 주어질 때마다 어떤 사람이 불순물로 판명되는 것을 보았다. 언제나 정금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신앙적인 위기가 있을 때마다 어떤 사람들은 유혹에 넘어진다. 하나님의 혼드심은 많은 사람들을 마른 잎처럼 떨어져 나가게 할 것이다. 변영의 때에는 믿음을 공언하는 사람들이 크게 증가한다. 역경은 그들을 교회 밖으로 추방한다. 한 부류로서 그들의 정신은

하나님께 견고하지 못하다. 그들은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으므로 우리를 떠나 간다. 말씀으로 인해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은 실족하게 된다.”(4증언, 89)

4. 이 금의 결핍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상들을 열거해보라. 어떻게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마 15:8)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 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히 3:12)

---

“믿음과 사랑은 황금 보화이며,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크게 부족한 요소들이다. 경고와 격려와 책망의 증언들에 대한 불신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빛을 차단하는 것임을 나는 보았다. 불신은 그들의 눈을 감기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진정한 상태에 대하여 무지하게 한다.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을 믿는 믿음이 결여되어 있다. ‘나의 주님이 더디 오시리라’는 말이 마음속에서만 아니라, 말과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행동에서 표현되고 있다. 이 깨어 있어야 할 시기에 무감각하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대의 징조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 만연하고 있는 비참한 죄악은 교회로부터 죄를 제거하기 위한 최고의 성실과 산 증언을 요구하고 있다. 믿음은 두려울 정도로 감소되고 있다. 믿음이 증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을 활용함으로써이다.”(3증언, 255, 256)

## 금을 사라

5. 하늘 상인의 물건들은 값이 없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것들을 어떻게 살 수 있는가?

“너희 목마른 자들이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 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사 55:1, 2)

“어떤 사람은 우리가 선행을 통해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는 것이 우리 자신의 공로를 높이는 것이라고 말할 것이다. 참으로 우리는 우리 선행으로 단 하나의 승리도 살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없이는 승리자가 될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사라고 권하시는 것은 오직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조건에 응하는 것뿐이다. 가치를 헤아릴 수 없고, 시련과 역경의 시험을 견디게 해 줄 참된 은혜는, 믿음과 겸손하고 경건한 순종을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다. 어려움과 핍박의 시험을 견디고, 그들의 온전함과 신실함을 증거하는 은혜는 불 속에서 연단을 받아 순수하게 된 금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에게 이 고귀한 보화를 사라고 하신다.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죽은, 생기 없는 의무의 이행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지 못한다. 우리는 뜻뜻미지근한 상태에서 벗어나서 참된 회심을 경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늘을 잃게 될 것이다.”(4중언, 89)

6. 하늘의 금을 값진 보화로 본다면, 값진 진주의 비유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마 13:45, 46)

“비유 가운데 진주를 선물이라고 하지 않았다. 장사는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주고 그것을 샀다고 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를 선물이라고 했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묻는 사람이 많이 있다. 물론 그분은 값없이 주신 선물이다. 그러나 그분에게 아낌없이 자기 자신 곧 영과 혼과 몸을 바치는 자들에게만 그러하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즐겨 순종하는 생애를 살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쳐야 한다. 우리 자신과 우리가 가진 모든 재능이 다 주의 것이므로 그 모든 것을 그분을 섬기는 일에 바쳐야 한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그에게 바칠 때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모든 보화와 아울러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실물, 116)

“언제나 값진 진주를 찾아 헤매는 자들이 있다. 그러나 저들은 저들이 가진 바 그릇된 습관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는다. 또한 저들은 그리스도께서 저들 안에 사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에 대하여 죽지 않는다. 그런고로 저들은 보배로운 진주를 발견하지 못한다. 또한 저들은 부정한 야심과 세속적

인 매력에 대한 저들의 애착을 버리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저들은 십자가를 높이지 않으며 극기와 자아 희생의 생애로써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다.”(1기별, 399)

“불로 연단한 금은 곧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오직 이것만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다. 우리는 활기차게 많은 일을 할 수 있으나 사랑 곧 그리스도의 마음에 있었던 그같은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하늘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없다.”(실물, 158)

## 불로 연단한 금

7. 그리스도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시대에 당신의 자녀들 각 사람의 마음속에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말해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케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케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그 때에 유대와 예루살렘의 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말 3:3, 4)

.....

“우리들의 품성 중에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갈 수 없는 것들은 모두 다 책망을 받을 것이다. 만약 우리가 깨끗케 하시는 주님께 복종하면 모든 찌끼와 쓰레기들을 그분께서 다 태워 없애실 것이다. 주의 택하신 자들이 이 시기에 적절한 빛을 받을 때 그들은 스스로를 높이도록 인도되지 않을 것이다.”(화이트주석, 말 3:1-3)

“[말 3:3, 4 인용] 이 말씀 속에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 사람의 마음을 세련되게 하시고, 순결하게 하시는 과정이 묘사되어 있다. 그 과정이 영혼에게는 큰 시험이지만 이 방법에 의해서만이 찌꺼기가 제거될 수가 있다. 우리가 시련을 견뎌야 할 필요가 여기에 있다. 이러한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 아버지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게 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 의의 제물을 드릴 수가 있다.”(화이트주석, 말 3:3, 4)

8. 이 연단의 과정이 어떻게 이뤄지는지에 대해서 실제적인 경험을 설명해보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롬 5:3, 4)

---

“가혹한 사람은 세련되지 못하고 거칠며 영적인 사람이 아니다. 그는 부드러운 마음보다는 돌같이 무감각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의 유일한 소망은 반석 위에 떨어져 깨어지는 것이다. 주께서는 이와 같은 모든 사람들을 가혹한 시련 가운데 두시고 금을 연단하는 것처럼 그들을 불로 연단하신다. 그분은 저희 속에서 당신 자신의 형상이 반사되는 것을 볼 수 있을 때에 그 시련들을 옮기실 것이다. … 그리스도의 종교는 전신에 관계된 것이며 우리의 모든 기능에 힘과 능력을 주며 고상하게 하고 세련되게 하며 품위있게 한다. 그것은 그 자체를 과시하거나 공언하지 않아도 나타나며 바르고 무아의 생애 속에 보여진다.”(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100)

## 봉사 활동

### 9. 하늘 상인의 금은 어떻게 해야 가치가 증대되는가?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 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벧전 1:7-9)

---

“참된 증인께서는 불로 연단한 금과 흰옷과 안약을 그분에게서 사라고 권고하신다. 여기서 권하는 불로 연단한 금은 믿음과 사랑이다. 이것은 심령을 부요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그것은 순수해 질 때까지 닦여졌으며, 그것은 시험을 당하면 당할수록 그 광채가 더욱 빛나기 때문이다.”(4증언, 88)

### 10. 그리스도로부터 금을 사는 것이 왜 확실하고도 지혜로운 투자인지를 설명해보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마 6:19-21)

“그리스도와 미래의 생애를 위한 이기심 없는 활동은 금과 은과 보석처럼 될 것이다. 그것은 없어지지 않는다.”(5증언, 466)

“참된 증인의 권면은 위로와 격려로 가득 차 있다. 교회는 아직도 진리와 믿음과 사랑의 금을 얻을 수가 있고, 하늘의 보화로 부요하게 될 수가 있다.”(화이트주석, 계 3:18)

## [상고할 말씀]

“예레미야는 현명한 대 건축가처럼 그의 필생의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유다 사람들에게 철저히 회개함으로 그들의 영적 생애의 기초를 넓고 깊게 놓도록 격려하였다. 그들은 오랫동안 사도 바울이 나무와 풀과 짚으로 비유하고 예레미야 자신은 찌끼로 비유한 재료를 가지고 건축하여 왔었다. 예레미야는 회개하지 않는 국민에 대하여 ‘사람들이 그들을 내어버린 은이라 칭하게 될 것은 나 여호와가 그들을 버렸음이니라’(렘 6:30)고 선언하였다. 이제 그들은 배도와 불신의 쓰레기를 버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납될 수 있는 순금과 정련한 은과 보석들 곧 믿음과 순종과 선한 행실을 기초 재료로 사용하여 현명하게, 영원을 위한 건물을 짓기 시작하라는 권고를 받았다.”(선지, 409)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계 3:17, 18). 불로 연단한 금은 곧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오직 이것만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다. 우리는 활기차게 많은 일을 할 수 있으나 사랑 곧 그리스도의 마음에 있었던 그같은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하늘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없다.”(실물, 158)

# 흰 옷

## [연구범위]

실물교훈, 310~319; 가려뽑은 기별 1권, 373~376.

**기억절 :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계 3:18)**

**서론 : “그리스도께서 친히 준비하신 옷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게 할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옷 곧 그리스도의 의의 두루마기를 회개하고 믿는 모든 자에게 입혀 주실 것이다.”(실물, 311)**

“흰 옷은 그리스도의 의이며,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혼인 예복이다.”(화이트주석, 계 3:18)

##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가?

1.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벌거벗음이 어떻게 인간 역사를 통하여 그 뿌리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설명해보라.

“...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창 3:6, 7)

창 3:8~10.

“순결한 흰 두루마기는 본래 우리의 시조가 거룩한 에덴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입혀 주셨던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일치한 생애를 살았고 저희의 모든 애정을 저희 천부께 바쳤던 것이다. 그리하여 아름답고 부드러운 하나님의 빛이 그 거룩한 부부를 둘러쌌다. 이 빛의 두루마기는 하늘의 순결한 영적 옷의 상징이었다. 만일 저희가 하나님께 충실했더라면 그 빛의 두루마기가 언제까지나 계속해서 저희를 두르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지게 되고 그들을 둘러쌌던 빛은 사라지게 되었다. 별거벗게 되자 부끄러워서 저희는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몸을 가림으로 하늘의 옷을 대신하려 했다.”(실물, 310)

“독선(獨善)은 이 시대의 위험이다. 그것은 영혼을 그리스도와 분리시킨다. 자기 자신의 의를 신뢰하는 자들은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이 이르러 오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들은 죄를 의라고 부르고 의를 죄라고 부른다. 그들은 하나님의 도덕적 표준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범법의 악을 깨닫지 못하고 율법의 두려움을 이해하지 못한다. 오늘날 거짓 회심(悔心)이 것처럼 많은 까닭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이해가 지나치게 낮기 때문이다.”(믿음, 96)

## 2. 참된 증인께서 우리에게 사라고 권하시는 것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 흰 옷을 사서 입어 별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계 3:18)

“그리스도께서 친히 준비하신 옷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게 할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옷 곧 그리스도의 의의 두루마기를 회개하고 믿는 모든 자에게 입혀 주실 것이다. 그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 흰옷을 사서 입어 별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계 3:18) 하라고 하신다.

하늘 베틀로 짠 이 두루마기에는 사람이 만든 실은 한 올도 섞이지 않았다. 인성으로 나타나신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품성을 나타내셨고 이 품성을 우리에게 나눠 주신다. …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칠 때에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합되고 우리의 뜻은 그분의 뜻에 합병되고, 우리의 정신은 그분의 정신과 하나가 되고, 우리 생각은 그분에게 사로잡히게 되어 마침내 우리는 그분의 생애를 살게 된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의의 옷을 입는다는 의미이다. 그리하면 주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무화과나무 잎으로 엮은

옷이나 죄로 인해 벌거벗고 뒤틀린 우리의 몸은 보지 아니하시고 여호와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이루신 당신 자신의 의의 두루마기를 보게 된다.” (실물, 311, 312)

## 그리스도의 의(義)

3.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실천해 보이셨는가? 그분은 어떤 생애를 사셨는가?

“여호와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인하여 기쁨으로 그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케 하려 하셨으나”(사 42:21)

시 40:8.

“그리스도는 하늘 왕의 궁전을 떠나서 그의 아버지의 품성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우리의 세상에 오셨다. 이리하여 그는 인간을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로 되돌아가게 하시려고 인간을 도우신다. 사람들은 사단의 형상을 입고 있었다.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그들에게 도덕적 능력과 능률을 가져다 주려 하심이었다. 그는 우리와 같은 인성을 입으시고 힘없는 어린 아기로 세상에 오셨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매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속’하셨다. 그는 천사의 모습으로 오실 수가 없었다. 이는 그가 만약 사람으로서 사람을 만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그분에게도 주어진다는 것을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증명해 보이지 않으면 그는 우리들의 완전한 모본이 될 수가 없으셨기 때문이었다. 그는 비천한 가운데 오셨다. 이는 지상에서 가장 비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가난이나 무지 때문에 ‘나는 여호와의 율법을 순종할 수 없소’하고 변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신성 위에 인성을 입으신 것은 인간으로서 인간의 마음에 접근하려 하심이요, 인성을 가지고 생활하려 하심이었고, 인간의 모든 시련과 고난들을 담당하려 함이었다. 그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신 분이였다. 그의 인성으로 그는 사람에게 닥치는 모든 시험들을 이해하였다(원고 21, 1895).”(화잇주석, 히 2:14-18)

4. 하늘 베틀로 짠 옷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형겁으로 기운 옷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과를 제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슥 3:4)

마 9:16.

---

“하나님의 종교는 셀 수 없이 많은 실을 가지고 솜씨와 기술로 짠 질긴 직물과 같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라야만 이 직물을 완전하게 만들 수가 있다. 처음 보기에는 훌륭한 모양을 갖춘 매우 많은 종류의 옷감이 있지만 그것들은 시험을 견딜 수가 없다. 씻어보면 색이 바래고 물감이 잘 들어있지 못하다. 여름의 열기아래 물감이 날고 색깔이 나빠진다. 그런 옷감은 거칠게 취급하면 망가진다.

많은 종교들이 이와 같다. 시련이라는 시험이 닥치면 품성의 씨와 날이 견디지 못할 것이며, 그것을 이루고 있는 재료들은 무가치하게 된다. 새 형겅으로 낡은 천을 기우려는 노력은 일의 상태를 호전시키지 못한다. 이는 옛 것의 낡은 재료가 새것 때문에 찢어지고 겁기 전보다 더 크게 찢어지기 때문이다. 기워서 될 일이 아니다. 단 하나 방법이 있다면 낡은 옷을 아주 없애 버리고 전혀 새로운 것을 구하는 방법 밖에 없다.

그리스도의 계획은 하나 밖에 없는 안전한 계획이다. 그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신다.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형겅으로 기운 품성(그것도 그리스도는 조금 섞이고 자아가 대부분을 차지한)을 받으실 것이라고 생각하도록 하신 적이 없다.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이다. … (편지 105, 1893).”(화잇주석, 고후 5:17)

## 칭의와 성화

### 5. 그리스도의 의는 어떻게 우리에게 입혀지는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은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파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 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롬 3:23-26)

롬 5:17~19.

---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응할 만한 자신의 의는 조금도 가지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할 길을 열어 주셨다. 그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것과 같은 고난과 시험 가운데서 사셨다. 그는 죄 없는 생애를 사셨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지금 그는 우리 죄를 벗기시고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다. 그대가 자신을 그에게 바치고 그를 그대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그대의 생애가 아무리 악하였을지라도 그의 공로로 인하여 그대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대의 품성을 대신하게 되고 그대는 죄를 도무지 범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앞에 받아들이는 바 된다.”(정로, 62)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칠 때에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합되고 우리의 뜻은 그분의 뜻에 합병되고, 우리의 정신은 그분의 정신과 하나가 되고, 우리 생각은 그분에게 사로잡히게 되어 마침내 우리는 그분의 생애를 살게 된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의의 옷을 입는다는 의미이다.”(실물, 312)

6.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안에서 또한 우리를 통하여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갈 2:20)

요 16:13(상단).

---

“이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마음을 변화시키신다. 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마음 가운데 거하신다. 그대는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그대의 마음을 항상 그에게 바침으로 말미암아 유지해야 할 것이다. 그대가 이렇게 하는 동안에는 그는 그대의 원하고 행하는 것을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갈 2:20)고 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 성령이시니라’(마 10:20)고 하셨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그대의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시면 그대는 같은 정신을 나타낼 것이며 또한 같은 행실-의와 순종의 행실-을 행하게 될 것이다.”(정로, 62, 63)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칠 때에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합되고 우리의 뜻은 그분의 뜻에 합병되고, 우리의 정신은 그분의 정신과 하나가 되고, 우리 생각은 그분에게 사로잡히게 되어 마침내 우리는 그분의 생애를 살게 된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의의 옷을 입는다는 의미이다. 그리하면 주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무화과나무 잎으로 엮은 옷이나 죄로 인해 벗겨버리고 뒤틀린 우리의 몸은 보지 아니하시고 여호와와 의의 옷을 온전히 순종하십시오로 이루신 당신 자신의 의의 두루마기를 보게 된다.”(실물, 312)

“흰옷은 품성의 순결, 곧 죄인에게 나누어 주시는 그리스도의 의이다. 이것은 정말로 하늘의 직물로 짠 옷이며, 자발적인 순종의 삶을 위해 그리스도에게서만이 살 수 있는 것이다.”(4증언, 88)

## 혼인 예복

7.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준비하신 옷을 입는 것이 지극히 중요함을 어떻게 묘사하셨는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임금이 손을 보려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언이여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앓고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마 22:11-14)

마 22:1~4.

“예복을 입지 않고 혼인 잔치에 참석한 사람은 오늘날 이 세상을 사는 많은 사람의 상태를 나타낸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면서 복음의 축복과 특권을 요구한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품성의 변화의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그들은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를 전혀 체험하지 못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필요를 느끼지도 않고 그분에 대한 믿음도 나타내지 않았다. 저희는 악을 행하고자 하는 선천적, 또는 후천적 성벽을 극복하지 못했다. 그러면서도 그들 자신이 꽤 선하다고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대신에 저희 자신의 공로를 의뢰한다. 그들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들으로써 잔치에는 왔으나 그리스도의 의의 두루마기는 입지 않았다.”(실물, 315)

## 8. 주님께서 마련하신 예복을 입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경험은 어떤 것인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롬 8:1-4) **벧전 1:22.**

“하나님께서서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혼인 예복 없이 발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믿음과 거룩한 소망 가운데 빠르게 성취되는 예언의 도표를 따라 가며, 진리에 순종함으로 자신들의 영혼을 정결케 하려고 노력하는 한 백성을 이 땅에 가지고 계신다.”(4증언, 307)

“구원을 탐구하는 자들이 패배와 실망을 거부할 때 저들은 주님 안에서 화평과 안식을 찾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의로 저들을 옷 입히실 것이다.”(1기별, 400)

## 그리스도 우리의 의

### 9. 그리스도의 의가 하늘 왕국에 들어갈 후보자들에게 왜 입혀지고 나누어져야 하는가?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렘 23:6)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벧전 4:18)

---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는 의는 입혀주신 의이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의는 나누어 주신 의이다. 첫째 것은 우리가 하늘에 갈 수 있는 자격이고 둘째 것은 우리가 하늘에서 생활할 수 있는 적합성이다.”(리뷰, 1895.6.4)

#### 10. 라오디게아 교회의 시대에 최후로 승리하는 남은 무리들을 묘사해보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계 7:13, 14)

계 19:8.

---

“하나님의 큰 날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유일한 안전책이 모든 죄와 불의에서 떠나는 데서 발견될 것임을 알 수 있다. 죄악 가운데 계속 머무르는 자들은 정죄받은 자들과 멸망받는 자들 가운데서 발견될 것이다.”(믿음, 117)

“마음의 순결과 동기의 순결이 아직도 마음을 반만 드리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고 애쓰는 사람들의 특징이 될 수가 있다. 그들은 아직도 품성의 옷을 씻을 수가 있으며, 그것은 어린양의 피로 희게할 수가 있다(리뷰 1894.8.18).”(화잇주석, 계 3:18-21)

## [상고할 말씀]

“자신의 더러운 예복을 벗어버리는 죄인에게 그의 의의 예복을 입혀 주시기 위해 그것을 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모든 인간들의 유일한 소망이 있다. … 순결하고 거룩한 예복은 도성 문을 통과한 후에는 누구에게도 입혀지지 않을 것이다.

들어가는 모든 자는 그리스도의 의의 예복을 입고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 있어야 한다. 이 이름은 사도가 계시가운데서 본 상징이며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지적이고 충성된 충성을 마음으로 드린다는 것을 상징한다. …

품성의 결점을 가리기 위해 어떤 죄나 잘못을 가릴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모든 예복은 빨다가 마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여 흠없게 되어야 한다.”(청년 지도자, 1886.8.18)

# 안약

## [연구범위]

복음전도, 593~599;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260~264.

기억질 :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  
고”(계 3:18)

서론 : “신령한 안약은 이해력을 밝혀 줄 것이다. 그리스도는 모든 은혜의  
보관자이시다. 그분은 ‘내게서 사라’고 말씀하신다.”(4증언, 89)

## 눈 먼 상태

1.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권면에서 참된 증인의 세 번째 권면은 무엇인가?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계 3:18)

.....

“바르는 기름은(안약) 그의 은혜의 기름으로서 눈이 멀어 어둡게 된 영혼에 영적 시력을 줄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과 원수의 영이 하는 일을 구별할 수 있게 된다.”(화잇주석, 계 3:18-20)

2. 하늘 안약이 발라지는 과정을 설명해보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마 6:22)

“눈은 예민한 양심이요, 내부의 빛, 곧 마음의 빛이다. 온 영혼과 전 존재의 영적 건강은 사물을 보는 눈의 정확한 시력에 달려 있다. 하나님의 말씀인 안약은 그것을 양심에다 적용시킬 때 양심을 예민하게 한다. 이는 그 말씀이 죄를 깨닫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눈이 치료를 받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향하게 하려면 예민하게 될 필요가 있다. 죄인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도덕경(道德鏡)을 바라볼 때 그는 하나님이 그를 보는 것같이 자신을 본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활용한다. ...

라오디게아인들은 완전히 눈이 먼 것이 아니다. 완전히 눈이 멀었다더라면 안약이 그들의 시력을 회복시키는 데에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것이다. 그대의 자부심을 버림으로써, 그대에게 아무리 귀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을 포기함으로써 그대는 금과 옷과 그대를 볼 수 있게 해줄 안약을 살 수가 있다(리뷰 1897.11.23).”(화잇주석, 계 3:18)

## 우리의 태도가 시험을 받음

3. 우리의 영적 감각에 대한 빈약한 식별력은 무엇을 초래하는가? 큰 빛을 받은 사람들에게서도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설명해보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케흠을 분별치 못하랴”(욥 6:30)  
 요일 2:9~11.

“죄인이 죄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자기의 유죄를 깨달을 수 없다.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한 성경상 성화를 경험하기란 불가능하다.”(믿음, 31)

“만일 그대가 그대의 영혼을 헛되이 높이며, 어그러진 것들을 말하며, 은밀하게 악독의 뿌리를 간직하고 있다면, 늦은 비 때에 그대가 귀한 그릇으로 발견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목사, 469)

4. 명백한 영적 식별력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다고 생각했던 한

사람의 예를 들어보라. 솔로몬의 기도의 비결은 무엇이었으며, 왜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했는가?

“계집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컨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삼하 14:17)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왕상 3:9, 10)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를 칭찬하셨다. 그분은 오늘날도 믿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부르짖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칭찬하실 것이다. 그는 봉사 준비를 위한 열렬한 기도에 틀림없이 응답하신다. 응답하실 때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라고 말씀하실 것이다.”(화잇주석, 왕상 3:5-9)

## 영적 유사점

5. 예수님께서서는 계시를 깨닫는 것이 점진적으로 된다는 것을 어떻게 실증해 보이셨는가? 이런 경험과 라오디게아 교회의 위험한 상태에 대한 영적 유사점을 설명해보라.

“벧새다에 이르매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께 나아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우러러 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다 나무 같은 것들의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막 8:22-24)

“내가 이러한 글을 쓰는 것은 계시 가운데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녀를 잃고 있는 사람들처럼 나에게 나타나 보였기 때문이다. 저들은 저들을 그물에 걸려들게 하기 위하여 기만자가 놓은 많은 함정들을 식별할 수 있기 이전에 또 하나의 다른 깊은 경험을 가져야 한다. 이제 중간 정도에서 일을 끝내는 불완전한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2기별, 395)

“날마다 하나님께 속한 사물에서 체험을 쌓아가지 않는 자들은 신성한 책임을 지혜롭게 수행해 나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오류를 빛으로 잘못 보고 가면을 쓴 오류를 빛이라고 말할 것이며, 망상을 실체로, 실체를 망상으로, 세계를 원자로, 원자를 세계로 잘못 부르게 될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특별한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고 인간의 지혜만으로 걸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빠뜨리기 위하여 사단이 숨겨 둔 그물로 마련한 기만과 속임수에 걸리고 말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사람들이 낮을 잃지 않고 분명하게 모든 사물들을 바라보기를 원하신다. 범죄한 영혼에게는 오직 한 가지 치료법이 있는데, 그 치료를 받지 않으면 사람들은 저들의 감각이 악화될 때까지 계속해서 속이려 드는 여러 가지 기만에 빠지게 될 것이다.-원고 16, 1890년”(전도, 593, 594)

## 6. 예수님께서 소경을 치유하실 때처럼, 안약을 바르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만물을 밝히 보느니라”(막 8:25)

“진정한 신앙, 곧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부활하신 구주의 공로만을 통해서 용서가 이르러 온다는 것을 가르치며,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옹호하는, 성경이 제시하는 유일한 신앙이 무시와 반박과 조롱과 거절을 당해왔다. 이것은 열광주의와 광신주의로 이끈다고 정죄를 당해왔다. 그러나 이것은 영혼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며, 성령에 의하여 나누어지는 활동적인 사랑의 원칙으로 이것을 통해서만 영혼이 선행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인간의 입술에서 일찍이 발해졌던 하나님을 위한 모든 기별의 힘이요 능력이다. 우리가 믿음의 일치룰 이루는 데 실패한다면 우리 앞에 미래는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셨던 연합 안에서 일치하게 될 때, 사단의 매개자들을 통하여 계속되어 왔던 이 오랜 논쟁은 끝이 날 것이며, 영적인 것을 식별할 영적 안목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세상적 이치를 따라 계획들을 세우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게 될 것이다. 그들은 지금 사람들을 나무들이 걸어다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보며, 그리스도께서 일하신 것처럼 일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만저 주심이 필요하다. 그 때에 시온의 파수꾼들은 합심하여 더욱 분명하고, 더욱 큰 음조로 나팔을

볼게 될 것이다.”(목사, 468)

## 영적 식별력이 필요함

7. 특히 마지막 때에 혼란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꾼들의 가장 엄숙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겔 44:23)

---

“안약은 우리로 하여금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해 주며 어떤 속임수 하에서도 죄를 발견케 해 주는 지혜와 은혜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교회에 눈을 주셨는데, 그분께서는 그들이 분명히 볼 수 있도록 그 눈에 지혜의 안약을 바르기를 요구하신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할 수 있으면 이 교회의 눈을 뽑아버리려고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행위가 밝히 드러나 책망받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4증언, 88, 89)

“우리들은 극히 조심하여야 하며 하나님 앞에서 겸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들은 영적 안약을 바름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과 난폭한 방종이나 광신주의를 불러일으키는 영의 역사를 분간하여야 한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마 7:20). 참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은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함을 받게 될 것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남녀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은 사랑과 순결로써 사람들을 감동시킬 것이며 저들의 품성 가운데 우아함이 드러날 것이다.”(1기별, 142)

8. 영적 식별력을 계발함으로써 얻어질 결과를 묘사해보라.

“무릇 명령을 지키는 자는 화를 모르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시기와 판단을 분별하나니”(전 8:5)

---

“안약은 그대들로 하여금 사단의 간계를 깨달아 그것들을 피하게 해 주고, 죄를 찾아내어 그것을 증오하게 하고, 진리를 깨닫고 그것을 순종하게 해주는

영적 식별력이다.”(5증언, 233)

“경건의 정신은 마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져야함을 깨닫게 한다. 섬기는 천사들은 마음과 생각의 눈을 열어 주의 법과 자연계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영원한 사물 속에 있는 기이한 것들을 보게 한다.”(오늘의 나의 생애, 291)

## 눈이 밝아짐

9. 많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슬프게도 왜 하늘 안약을 바르는데 실패함으로 멸망할 것인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고전 2:14)

---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일을 맡기셨다. 아무도 그를 대신해서 그 일을 할 수는 없다. 아, 그대들이 개인적으로 안약을 발라서 그대들의 품성의 결함들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밀쳐내고 있는 세상에 대한 그대들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시는지 깨달을 수 있다면 좋으련만.”(4증언, 615)

10. 우리의 영적인 눈은 어떻게 밝아질 수 있는가?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의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시 119:18)  
히 5:14.

---

“사람이 그들의 눈을 불완전한 인간에게서 돌려 예수를 바라볼 때에 그들의 품성에 신령한 변화가 생긴다. 마음속에서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화하게 한다. 그 다음에 그대가 할 일은 예수를 높이는 일이다. 마음의 눈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요 1:29)에게로 돌려라. 그리고 그대가 이 일에 종사할 때에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약 5:20)는다는 것을 기억하라.”(실물, 250)

“만일 우리들이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영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들은 밝은 시력을 갖게 될 것이다. 그 때에 우리들은 백방으로 밀려오는 위기들을 식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들이 말하는 모든 말들을 삼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에 사단은 자기의 기만술을 꾸며놓을 기회를 찾게 된다.”(The Paulson Collection, 144)

“우리는 사람들의 눈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끌어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의 아들을 못 박은 죄를 자각함으로 깊은 찢림을 받게 했다. 그들은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단계들을 보게 되었다. 그들은 복음의 능력을 체험했고 저희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봄으로 부드러워졌다. 저희는 그리스도의 품성의 아름다움을 보았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모든 것이 아무런 소용도 없었다. 저희는 저희 자신의 습관과 특성을 버리려 하지 않았다. 저희는 하늘의 두루마기를 입기 위하여 이 세상의 옷을 벗으려 하지 않았다. 저희 마음에는 탐심이 가득했다. 저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세상과 짝하기를 더 좋아했다.”(실물, 317)

## [상고할 말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들은 그들과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신 인애와 판단력과 의를 나타내 보여야 한다. 그리스도를 나타낼 필요를 느끼는 사람들보다 그리스도가 더 필요로 하시는 것이 없다. 악한 말과 악한 생각은 영혼을 파멸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이 총회에서의 현실이었다. 교회에서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결여되어 있다. 교회의 교인들이 거룩한 사귄으로 하나되고 그리스도와 협력할 때 그리스도는 그들 속에 살며 역사하신다. ...

우리의 눈에 하늘의 안약을 발라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마땅히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높은 표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하게 능력이 주어진다 는 것 등을 볼 수 있어야 한다. ...

우리는 우리의 모본이신 예수님을 우리 앞에 모셔야 한다. 이것이 현대 진리이며, 영원히 그러할 것이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의 품성의 미덕들을 귀하게 여길 때 요한은 그의 영 안에서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었다. ... 요한에게 구세주의 사랑과, 그의 자녀들 간에 서로 나타내야 할 사랑을 말하는 일이 맡겨졌다. 요한은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라고 기록하였다. ...

바리새인들처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에 결핍되어 있으면서 자기들의 경건에 대하여는 크게 자랑하는 자들에게 하실 명백한 말씀이 주님께 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알기를 거부하였다. 우리들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행하던 것과 같은 일들을 하는 위험에 있지 않은가?”(원고 8a, 1888년)

# 1888년 대총회의 배경

[연구범위]

가려뽑은 기별 1권, 120~152; 가려뽑은 기별 3권, 156~162.

**기억절 :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속 4:6)**

**서론 :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할 참된 경건의 부흥은 우리의 모든 필요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고 가장 긴급한 것이다. 이러한 신앙 부흥을 일으키는 것이 우리의 첫째 사업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주님의 축복을 받기 위한 열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바 하나님께서 당신의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고 싶지 않으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1기별, 121)**

## 재림교회 상태(연도별)

1. 1844년 재림운동으로 말미암아 탄생하게 된 재림교회는 언제부터 라오디게아 상태에 처하게 되었는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계 3:15)

계 3:14~20.

“근래에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추종자들을 찾기 위하여 주위를 살펴보았을 때 내 마음은 심히 괴로웠다. 그리스도의 신속한 재림을 기다린다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조류를 따라가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보다는 주위 사람들에게서 갈채받기를 훨씬 더 열렬히 구하고 있으며 그들이 갖 떠나온 이름 뿐인 교회들처럼 냉랭하고 형식적이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기별의 말씀은 그들의 현재의 형편을 잘 묘사해 주고 있다(계 3:14-20을 보라). 저들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고 그저 ‘미지근’하다. 저들이 ‘신실하고 참된 증인’의 권고를 듣고 열심을 내어 회개하지 않으며, ‘불로 연단한 금’과 ‘흰옷’과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지 않으면 그들을 토하여 내치실 것이다.”(초기, 107; 1852년)

## 2. 교회증언은 선지자를 통해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증언이다. 1850년대부터 재림교회에게 어떤 위협이 지적되기 시작하였는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마 7:13, 14)

---

**1856년**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너희는 예비하라’는 말을 그들의 옷에 기록한 많은 사람들이 이 넓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나는 보았다. 그들은 그들의 얼굴에 보이는 슬픔의 그림자 외에는 그들 주변에 있는 허망한 자들과 꼭 같아 보였다. 그들의 대화는 그들 주변의 경박한 자들의 대화와 꼭 같았다. 그러나, 그들은 매우 만족한 표정으로 그들의 옷에 쓰여 있는 글자를 지적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들의 것과 같은 글자를 쓰도록 요구했다. 그들은 넓은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좁은 길을 가고 있는 자들에게 속한다고 공언하였다. 그러나, 그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말하곤 하였다. ‘우리들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우리도 꼭 같다. 우리도 꼭 같이 옷을 입고 말하고 행동한다.’ …

나는 이 마지막 시대에 진리를 믿노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행하는 도중에 불평한 사실과, 하나님이 그들을 놀랍게 인도해 주신 후에도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잊어버릴 만큼 배은망덕하게 된 사실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을 보았다. ‘너희는 그들보다 더욱 나쁘게 행하였’다고 천사는 말했다.”(1증언, 128, 129)

**1859년** “나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준 증언이 오늘날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해당된다는 것과, 큰 사업이 성취되지 않은 것은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았다. … 거의 모든 사람들은 이 기별이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을 통하여 끝나게 될 것을 믿었다. 그러나, 그들이 짧은 기간에 강력한 사업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하게 되자, 많은 사람들은 그 기별의 효력을 상실해 버렸다.”(1증언, 186)

### 3. 1863년 “제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는 명칭으로 조직된 이후 재림교회의 상태는 어떤 방향으로 발전하였는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딤후 3:5)

.....

**1867년** “우리는 세상과 너무도 밀접히 연합해 왔기 때문에 십자가를 보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1증언, 525)

**1868년** “고대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교회는 빛에서 떠나감으로, 의무를 게을리함으로, 품성의 거룩함과 특수함을 이루는 높고 고귀한 특권을 남용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 교인들은 하나님, 그분만을 위하여 살겠다는 언약을 어겼다. 그들은 이기적이며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과 연합하였다. 교만, 쾌락의 추구, 죄악이 소중히 여겨졌으며, 그리스도는 떠나가셨다. 그분의 영은 교회 안에서 소멸되었다. 사단은 공연하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일한다. 그러나 그들은 영적 분별력이 너무 없어서 그를 알아차리지도 못한다.”(2증언, 441, 442)

**1873년** “그들은 영적으로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고 스스로 믿으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그들이 전혀 잘못되어 있는데도 스스로 옳다고 확신하는 것보다 더 큰 기만이 어떻게 사람의 마음에 자리잡을 수 있을까! 참된 증인의 기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참한 기만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전혀 그 기만을 알지 못함을 보여 준다.”(3증언, 252)

**1879년** “이 교회 안의 어떤 사람들은, 이생에 대한 염려와 세상적인 생각으로 마음이 가득 차서 하나님이나 하늘, 그리고 자신들의 영혼의 필요를 생각하지 못하는 위험이 항상 있다. … 그들이 자신들의 무감각에서 완전히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신 빛을 제거하시고 축복을 거두실 것이다. 그분은 분노하심으로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실 것이다. 그분은 이 교회를 그분의 율법의 보관자로 삼으셨다.”(4증언, 286)

4. 재림교회는 1888년 대총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별을 받아들임으로 라오디게아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그 대총회가 있기 직전의 상태는 어떠했는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사 59:1, 2)

---

**1882년**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그분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오직 우리의 죄악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분리시켰다. 교회는 몸을 더럽히고 심령을 불결하게 하는 교인들 때문에 부패해진다.”(5증언, 79)

**1886년** “여러 주일 동안 나는 새벽 3시 반 이후로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상태에 관하여 깊이 생각해 보았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진리에 대하여 더욱 큰 빛과 지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진리를 믿노라고 입으로 공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진리를 실천함으로써 받은 바 빛을 전진시켜야 할 더욱 큰 책임을 지고 있다. …

진리를 믿노라고 주장하는 백성들이 빛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해서 정죄를 받게 될 것이 아니라 저들이 큰 빛을 가졌으면서도 하나님의 크신 의의 도덕적인 표준에 대한 시험에 저희 마음을 복종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정죄를 받게 될 것이다.”(2기별, 376, 377)

**1887년** “이런 두렵고 엄숙한 시기에 우리의 상태는 어떠한가? 아, 슬프도다. 교만, 위선, 기만, 의복에 대한 사랑, 경솔한 언동, 오락, 최상권을 얻고자 하는 욕망, 이런 것들이 교회에 너무나 만연해 있지 않은가! 이런 모든 죄악들

이 마음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사물들이 분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리뷰, 1887.3.22)

**1888년** “우리 교회 모든 교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엄숙한 질문이 마음 속 깊이 새겨져야 한다. …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의 참 상태에 관한 사실은 그들의 고백보다 더 크게 나타나 있으며, 어떤 세력이 영원한 반석에 매달려 있는 닻줄을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은 향해 도표도 나침반도 없이 바다를 표류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준다.”(리뷰, 1888.7.24)

## 잃어버린 진리

5. 선지자가 연도별로 제시하신 말씀들을 상고하여 볼 때, 재림교회의 상태는 이미 라오디게아상태가 되었음을 알게 된다. 그 원인으로 선지자는 바로 재림교회가 귀중한 진리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지적하셨다. 그 귀중한 진리는 무엇인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 앞에 밝히 보이거늘 …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나 듣고 믿음으로나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나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갈 3:1-3)

.....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민노라고 공언하는 많은 자들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교리를 잃어버렸다”(리뷰, 1889.8.13)

“우리의 현실과 영원한 복리를 위하여 것처럼 중요한 이 주제(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관한 성경상 진리를 스스로 이해하는 사람은 백 명 가운데 한 사람도 없다”(리뷰, 1889.9.3)

“나는 교회를 향하여 엄숙한 말을 한다. 현재 교회 녹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이십 명 중 한 사람도 그들의 지상에서의 생애를 마감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그들은 진실로 일반 죄인들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는 자와 같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41(영문)(1893년).”(사건, 172)

6. 그 진리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론

## 적인 지식인가? 아니면 체험적인 지식인가?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롬 2:28, 29)

---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백성의 경험에서 실현되지 못하면 거짓 이론과 그릇된 사상이 마음을 사로잡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는 많은 사람들의 경험에서 사라지고 그들의 믿음은 능력과 생기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와 같은 사람들은 매일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살아있는 체험을 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열심을 내어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은 라오디게아 교회로 상징된 사람들에게 속하게 되어 하나님의 입에서 토하여 냄을 당할 것이다.”(리뷰, 1889.9.3)

## 불필요한 논쟁

7. 1888년 대총회가 있기 전에, 교회 안에는 어떤 불필요한 논쟁이 있었는가?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 이가 있어서 먹고 부숴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 뿔이 있으므로”(단 7:7)

---

“여기서 그는 1888년 모임을 재림 교단 역사상 어떤 다른 총회와도 다르게 만든 신학적 토론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 열 왕국에 대한 토론이 격심해져서 어처구니없이 많은 시간이 소비되었다. ... 이것은 대총회 기간의 첫 주 내내 계속되었다.”(3기별, 157-158; 엘렌 G. 화잇 유산 관리 위원회)

“문제는 1884년 대총회에서 A. T. 존스에게 다니엘 7장의 열 뿔을 포함한 예언의 성취에 대한 역사적 정보를 수집하도록 요청하였을 때 시작되었다.

유라이어 스미스는 존스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음이 대단히 기뻐했다. 그러나 젊은 존스가 열 뿔 중 한 뿔의 정체에 관하여 자기와 다른 의견을 내놓게 되자 그 기쁨은 사라지고 말았다. 그것은 종전의 해석이 틀렸다는 암

시였기 때문이었다. … 스미스는 <리뷰> 지를 통해 반박하였고, 그 결과 ‘토론’은 뜨거워졌다.”(어찌 우리 잊으랴, 226, 조지 나이트)

8. 또한 갈 3:24의 “몽학 선생”에 관하여 의문의 율법과 동일하게 와그너는 십계명을 어디에 포함시켰는가? 화잇 선지자의 대답은 무엇이었는가?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다”(갈 3:24, 25)

“갈라디아서에 있는 율법은 무엇인가? 어떤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인가? 확실한 대답은 의문의 율법과 도덕률 곧 십계명 둘 다 몽학 선생이다.”(원고 87, 1900년).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성경절에서 성령께서는 사도를 통하여 특별히 도덕률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신다.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나타내 보여주고,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느끼게 해주고,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활용함으로써 용서와 평화를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께로 달려 가게 해 준다. …

십계명을 자비의 측면에서 보고, 금지 조항이라는 측면에서 보지 말아야 한다. 그 금지 조항은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틀림이 없는 행복을 보증하는 것이다.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였을 때 그것은 우리 속에서 역사하여 품성을 순결하게 하고 그 품성은 무궁토록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것은 순종하는 자들을 보호하는 방호벽이 된다.”(원고 23a, 1896).”(화잇주석, 갈 3:24)

## 논쟁에 대한 우리의 지혜

9. 교회에서 종종 교리적인 논쟁이 벌어지곤 한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다툼을 멀리 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여늘”(잠 20:3)

“무엇이 진리인지를 이해하기 위하여 성경을 주의깊게 연구하라. 면밀하게 조사하더라도 진리가 손해볼 것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스스로 말하도록 하라. 말씀이 스스로 해설자가 되도록 하라. …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한 오류 탐지기이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말씀에 비춰보아야 한다고 믿는다. 성경이 우리의 모든 교리와 행동의 기준이 되어야만 한다. 우리는 누구의 말도 성경과 비교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말 것이다. 여기에 믿음 문제의 최고의 거룩한 권위가 있다. 바로 이것이 모든 논쟁을 결정하는 하나님의 산 말씀이다.”(서신 20, 1888년)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여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진리를 소유한 줄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어떤 교리를 누군가가 진리라고 했기 때문에 믿으면 안 된다. 우리는 스미스 목사, 킬고어 (Kilkore) 목사, 밴혼(Van Horn) 목사 또는 하스켈 (Haskell) 목사가 이를 진리라고 하여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 있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그것을 선포하였기 때문에 믿어야 한다.”(원고 15, 1888년)

10. 1888년 8월 5일, 대총회가 시작되기 두 달 전쯤에 화잇 선지자는 “대총회에 참석할 친애하는 형제들” 앞으로 편지를 보내셨다. 선지자께서는 그 편지를 통해서 신학적 논쟁을 어떻게 다루기를 호소하셨는가?

“베뢰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행 17:11)

“겸손한 마음,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무엇이 진리인지를 깨닫기 위해 성경을 살피십시오. 진리는 면밀히 조사해도 잃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게 하고, 그것이 자체의 해석자가 되게 하십시오.

우리 목사들 대부분은 통탄해 마지 않을 정도로 게으름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예컨대 스미스와 버틀러]이 대신 성경을 살피게 하고, 그들이 말하는 진리를 하나의 확실한 사실처럼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개인적 연구와, 그들의 마음과 생각에 깊은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을 힘입어 그것이 정말 성경 진리인지 아닌지 알아볼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

수많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그들에게

빛을 주어 깨닫게 해 달라고 진지하게 기도하며 성경을 연구하지 않기 때문에 잃어버린 바 될 것입니다. …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한 오류 검증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을 성경으로 검증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모든 교리와 행위의 표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경외심을 가지고 연구해야 합니다.”(서신 20, 1888년)

## [상고할 말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계 2:4, 5).

이 말씀은 제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의 현재의 처지를 말씀하는 것임을 말하도록 지시를 받았다. 하나님의 사랑을 버렸다. 이것은 형제간의 사랑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 자기, 자기를 사랑하고 높이고 자 싸운다. 이것이 얼마나 계속될 것인가? 다시 회개하지 않으면 이러한 경건의 부재가 머지않아 있을 것이며 교회는 열매없는 무화과나무로 표상될 것이다. 교회는 큰 빛을 받았다. 많은 열매를 맺을 수다한 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이기심이 들어왔으므로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으면 …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말씀하신다.

예수님은 가식적이고 열매없는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슬픔과 마지못한 마음으로 멸망의 선고를 내리셨다. 노하신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무화과나무는 시들어 죽었다. 하나님은 아직 때가 있는 동안 그의 백성들이 이 교훈을 자신들에게 적용하기를 바라신다. …

많은 신자들이 심령 가운데 신령한 생명의 호흡이 끊어진 듯이 보인다. 이 사실은 나를 매우 슬프게 한다. 세상과 육체와 마귀에 대항하여 쳐 복종시켜 오지 못했다. 우리가 빈사 상태의 그리스도인 정신, 세상에 속한 이기적이며 탐욕적인 정신, 경건치 못한 일에 세상과 짝하고 거짓

된 정신에 추파를 건네는 이러한 정신 상태에서 어떻게 기운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결코 그럴 수 없다. ...

하나님께서서는 신령한 신앙 부흥과 신령한 개혁 사업을 요구하신다. 이 일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미지근한 자들은 점점 더 주님께서 싫어하게 될 것이며 마침내는 저들을 당신의 자녀로 인정하시지 않게 될 것이다.

신앙 부흥과 개혁 사업은 성령의 조력을 힘입어 이루어져야 한다. 신앙 부흥과 개혁 사업은 별개의 것이다. 신앙 부흥이란 영적 생애를 소생 및 부흥시키는 것이며 정신력과 마음의 힘을 일깨워 주고 영적 사망에서 부활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혁 사업은 재조직, 사상과 이론의 변화 및 습관과 제도의 개선을 뜻하는 것이다. 개혁 사업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신앙 부흥과 연결되어 있지 않는 한 의의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신앙 부흥과 개혁 사업은 각기 맡은 분야를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을 수행하는 가운데 이 두 가지를 잘 혼합하여야 한다.”(리뷰, 1902.2.25)

# 1888년 대총회

[연구범위]

목사와 복음교역자에게 보내는 증언, 89~98; 가려뽑은 기별 3권, 162~189.

**기억절 :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렘 23:6)**

서론: “주님께서는 크신 자비를 베푸셔서 와그너와 존스 목사를 통해 그분의 백성들에게 지극히 소중한 기별을 보내셨다. 이 기별은 들리움을 받으신 구주,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희생 제물에 관한 소식을 세상을 향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낼 것이다. 그것은 보증물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제시하였다.”(목사, 91)

## 두 기별자

1. 1888년 대총회에서 하나님께서는 두 명의 기별자를 사용하셨다. 그 중에서 와그너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말 3:1)

“엘렛 J. 와그너(Ellet J. Waggoner)는 1888년 대총회 때 활동한 주요 연사들 중 가장 어린 사람이었다. 그는 1855년 생으로 우리가 이미 만났던 J. H. 와그너 목사의 아들이었다.

엘렛은 1878년 뉴욕 시에서 의사 학위를 받았으나 의사로서는 전혀 성취감을 느낄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목회에 입문하며, 1884년 <사인즈 오브 더 타임즈> 지의 부편집인으로 부름을 받았다.

젊은 와그너가 신학적 전환점을 맞이한 것은 1882년 캘리포니아 힐스버그의 야영회 때였다. 그는 설교를 듣던 중 그가 ‘성경 이외의 계시’라고 부르는 것을 체험하였다. 그는 이렇게 기록하였다.

‘갑자기 내 주변이 빛으로 환해지고 천막 안은 내 보기에 대낮의 태양보다도 더 환하게 밝아졌다. 그 때 나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보았다. 그 순간 난생 처음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음이 홍수처럼 밀려 오며 강한 확신을 느꼈다.’ 와그너는 ‘그 빛이 … 하늘이 직접 준 계시임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서 ‘그 빛으로 성경을 연구하여, 다른 사람들도 그 진리를 깨달도록 도우리라.’ 맹세하였다. 그 계획 때문에 그는 ‘성경 어디를 펴든지, 그리스도가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시됨을 발견하였다. 나는 다른 것을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 이 와그너의 ‘이상’은 결국 그를 갈라디아서에 대한 심층적 연구로 끌어들이었다. 출발이 그러했던 것만큼 그가 갈라디아서에서 복음을 발견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그 발견으로 그는 1880년대의 재림교회에서 유명 인사가 되었다. 그것은 또한 대총회가 열릴 때마다 G. I. 버틀러와 유라이어 스미스 같은 대총회 지도자들과 충돌하게 된 원인이기도 하였다.”(어찌 우리 잊으랴, 219; 조지 나이트)

## 2. 와그너와 함께 또 다른 기별자인, 존스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계 22:16)

“세상에 대하여는 죽고 당신을 향해서만 살기를 원합니다. 오 나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면서 하늘을 향해 두 팔을 치켜든, 알론조 T. 존스(Alonzo Jones)는 1874년 8월 8일 워싱턴 지역 왈라왈라의 물 침례 무덤에서 일어났다. 몇 주 동안 ‘열렬히 주님을 찾던’ 그는 그보다 수일 전 자신의 ‘죄가 용서 받았다는 빛나는 증거’를 받았었다. 카리스마적이고, 설득력 있고, 극적이고, 준수한 용모에, 극단적 경향이 있는 존스는 1890년대 재림신도들 중 지도적 인물이 되었다. …

존스의 개성과 전투적 스타일은 그의 반대파들을 많이 괴롭혔다. 엘렌 화잇은 그의 심한 말에 대해 반복하여 경고하였으나, 존스는 솔직한 말과 심한 말을 구분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사람이었다. ...

그런 무례한 언사는 존스의 앞길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으나, 두려움을 모르는 그의 설득력이 임박한 일요일 법령을 대결해 싸우기 위해 미합중국 의회와 기타 요인들을 접촉했을 때, 도움이 되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존스는 상황이 뜨거울수록 실력을 발휘하는 사람이었다.(어찌 우리 잇으랴, 220; 조지 나이트)

## 목회자 연구회

3. 1888년 대총회에 몇 명의 대표자들이 참석했으며, 대총회 전에는 어떤 모임이 있었는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요 5:39)

---

“91명의 대표들이 참석한 이 총회는 미네소타 주 미네아폴리스에 새로 세워진 우리 교회당에서 10월 17일부터 11월 4일까지 열렸다. 관습에 따라 대표가 아닌 일단의 제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교인들도 참석하였다. 이 총회에 앞서 10월 10일부터 10월 16일까지 7일간의 목회 강좌가 열렸다. 목회 강좌에서 시작된 성경 연구는 총회의 성경연구 시간에 할당되어 총회 기간까지 연장되는 경우가 있었다.”(3기별, 156; 엘렌 G. 화잇 유산 관리 위원회)

4. 대총회 전에 성경연구 모임이 있었다는 것은 왜 중요한가?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벧전 1:10)

---

“우리 백성들은 개인적으로 성경 진리를 더 철저히 이해해야 한다. 그들은 정녕 공회에 불려갈 것이며, 예리하고 비판적인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진리에 동의하는 것과 성경학도로서 깊이 살펴보고 무엇이

진리인지를 아는 것은 별개의 것이다. ...

수많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그들에게 빛을 주어 깨닫게 해 달라고 진지하게 기도하며 성경을 연구하지 않기 때문에 잃어버린 바 될 것이다. ...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한 오류 검증자이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을 성경으로 검증해야 한다. 성경은 우리의 모든 교리와 행위의 표준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성경을 경외심을 가지고 연구해야 한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의견도 성경과 비교해봄이 없이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 신앙 문제에 관한 한 가장 높은 신적 권위가 여기 있다.”(서신 20, 1888년)

## 1888년 기별

5. 1888년 대총회에서 누가 어떤 기별을 전했다는가? 이 기별은 새 기별인가 아니면 새롭게 나타난 기별이었는가?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벧후 1:12)

.....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야에서 잃어버렸다. 그들은 그분의 거룩한 인격, 공로, 인간 가족들에게 행하신 변함없는 사랑을 주목할 필요가 있었다. 모든 권세가 그분께 주어졌으므로 그분은 인간들에게 풍성한 은사를 나누어 주시며,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그분 자신의 의를 속절없는 인간 대리자들에게 나누어 주신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파하도록 명하신 기별이다. 이것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며, 이 기별은 큰소리로 전파되고, 크나큰 성령의 부어지심이 수반될 것이다.”(목사, 91, 92)

6. 1888년에 전해진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의 기별을 선지자는 어떻게 셋째 천사의 기별과 일치시켰는가? 어떤 사람들이 염려하는 바가 무엇이었는데 지토의해 보라.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벧전 1:12)

“어떤 형제들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들이 너무나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여 적이 염려하고 있으나 나는 아무도 이 일로 인해서 놀랄 필요가 없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바이다. 왜냐하면 이 교리를 성경에 밝혀진 그대로 증거 함에 있어서 아무런 위험이 없기 때문이다. 만약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철저히 가르치는 일에 태만과 부주의함이 없었다면 오늘날에 와서 특별한 관심을 집중시킬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

여러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기별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냐고 편지로 나에게 물어 왔으며 나는 ‘그것은 참된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라고 했다(리뷰 앤드 헤랄드, 1890년 4월 1일).”(1기별, 372)

## 재림성교회의 신기원

7. 1888년은 재림교회에 왜 중요한 해가 되는가? 1888년 믿음으로 말미암는 기별로 인하여 어떤 예언 성취의 시작이 되었는가?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계 18:1)

“시련의 시기가 우리에게 임박하였는데 이는 죄를 사유하시는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심으로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온 땅을 영광으로 환하게 할 천사의 빛의 시작이다.”(1기별, 362)

8. 1888년 대총회 이전 교회는 주로 어떤 말씀들에 주안점을 두었는가? 1888년 이후는 어떠하였는가?

“네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네 길로 행치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구치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사 58:12, 13)

“주님께서서는 크신 자비를 베푸셔서 와그너와 존스 목사를 통해 그분의 백성들에게 지극히 소중한 기별을 보내셨다. 이 기별은 들리움을 받으신 구주,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희생 제물에 관한 소식을 세상을 향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낼 것이다. 그것은 보증물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제시하였다. 그것은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도록 초청했는데, … 그분은 인간들에게 풍성한 은사를 나누어 주시며,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그분 자신의 의를 속절 없는 인간 대리자들에게 나누어 주신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파하도록 명하신 기별이다. 이것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며, 이 기별은 큰소리로 전파되고, 크나큰 성령의 부어지심이 수반될 것이다.”(목사, 91)

## 1888년 기별의 거절

9. 1888년 재림교회의 신기원을 이루는 기별과 기별자들을 어떻게 대우하였는가?

“여호와께서 그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시되 부지런히 보내셨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도 아니하였도다”(렘 25:4)

“선입 관념을 굽히고 이 진리를 받아들이기를 꺼려하는 마음은 주로 미네아폴리스 총회에서 [E. J. 와그너]와 [A. T. 존스] 두 형제를 통하여 주님께서 보내신 기별을 반대한 정신에 다분히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사단은 반대하는 정신을 자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시고자 하신 특별하신 능력을 우리 신자들에게서 빼앗는 데 성공하였다. 원수는 사도들이 오순절 이후에 진리를 선포한 것처럼 저들이 온 세상에 진리를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얻지 못하게 길을 막아 버렸다. 진리의 영광으로 온 땅을 환하게 비출 빛이 거절당하였으며 우리 형제들 스스로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어느 정도 세상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 막히고 말았다.”(1기별, 234, 235)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해야 할 특별한 기별을 위탁하신 사람들에게 대해 증오심을 키우고 있다. 그들은 이러한 사단적 사업을 미네아폴리스에서 시작했다. 후에 그들은 그 기별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르러 왔다는 것을 증거하는 성령의 나타나심을 통해 보고 느꼈을 때, 그것을 더욱 미워하였는데, 이는 그것이 그들을 거스리는 증언이었기 때문이다.”(목사, 79, 80)

“나는 우리가 미네아폴리스에서 가졌던 경험을 결코 잊을 수 없다. 그 때 사람들의 대화들을 지배했던 정신과 악의 권세에 굴복하므로 행해졌던 행동들에 관해 내게 계시되었던 것들을 결코 잊을 수 없다. … 그들은 그 회의에서 다른 신의 지배를 받았다.”(서신 24S, 1892년)

10. 1888년의 기별을 거절한 것은 누구를 거절하는 행위였는가? 과거 그리스도를 거절한 유대인의 경험과 비교하여 생각해보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고전 1:23, 24)

.....

“나는 결코 부드러운 기별을 전할 수 없다. 만일 그대가 그리스도께서 파송하신 사자들을 거절한다면, 그대는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것이다.”(목사, 97)

“미네아폴리스에서 하나님의 신을 거역한 자들은 다시 한번 입장을 취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

… 온 하늘 우주세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시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모욕적인 취급을 목격하셨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그들 앞에 계셨더라면, 그들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취급한 방법과 비슷한 방법으로 그분을 취급하였을 것이다. … 하나님의 성령을 대항하였으며 모욕하였다는 사실을 지금 깨닫지 못한다면, 가까운 미래에 깨닫게 될 것이다.”(특별증언 씨리즈 A. No. 6. pp. 19-26; 1896년)

“산헤드린은 그리스도의 기별을 거절하고 오히려 그를 죽이려고 열중하였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예루살렘과, 제사장들과, 성전과, 종교적 지도자들과,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에게서 떠나서 당신의 기별을 선포하시고 복음을 만국에 전파할 자들을 모으시기 위하여 다른 계층의 사람들에게로 향하셨다.”(소망, 232)

## [상고할 말씀]

“E. J. 와그너 장로에게 율법과 관련하여 그리스도의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그의 견해를 제시하며 명백하게 말할 수 있는 특권이 허락되었다. 이것은 새 빛이 아니다. 오히려 셋째 천사의 기별에 마땅한 자리를 차지한 옛 빛이다. … 그 기별의 취지는 무엇인가? 요한은 한 백성을 본다. 그는 말한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계 14:12). 요한은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을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14절)진 인자를 보기 직전에 이 백성을 본다.

예수 믿음은 간과되고 무관심하고 부주의하게 취급되어 왔다. 그것은 요한에게 계시되었을 때의 그 뛰어난 위치를 차지하지 못해 왔다. 죄인의 유일한 희망으로서의 예수를 믿는 믿음은 행해진 설교에서만 아니라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는다고 주장하는 매우 많은 사람들의 종교적 경험에서도 널리 배제되어 왔다.

1844년 이후 엘렌 G. 화잇이 제시해 왔던 진리 — 이 집회에서 나는 율법과 연관된 그리스도의 의의 위대한 주제를 제시함을 통해 가장 고귀한 빛이 성경으로부터 비취 나왔으며 그것은 죄인의 앞에 구원의 유일한 희망으로서 끊임없이 제시되어야 함을 증언했다. 이것은 내게 새 빛이 아니었다. 이는 내게 지난 44년 동안 보다 높은 권위자로부터 이것이 주어졌기 때문이며 나는 그분의 영의 증언을 통하여 펜과 목소리로 우리 백성에게 이것을 제시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주제에 대한 증언에 동의한 몇 사람들 외에는 이에 대해 호응한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 이 위대한 문제에 대하여 말해지고 쓰여진 것이 매우 적다. 어떤 이들의 설교는 그리스도가 없는 가인의 제물과 같다고 묘사해야 옳을 것이다. …

나는 내가 추구해야 할 최선의 노선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내 방으로 돌아왔다. 갈라디아의 율법에 대한 기도로 그날 밤 많은 시간을 보냈다. 이것은 단지 티에 불과했다. ‘주께서 가라사대’에 맞는 길이 무엇이든 간에 나의 영혼은 아멘, 아멘을 말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형제들

을 지배하고 있는 정신은 예수의 정신과는 너무나 판이했으며 피차간에 행사해야 할 정신과는 너무 반대되었으므로 나의 영혼은 고뇌로 차게 되었다.

내게는 다음 날 아침 목회자를 위한 집회에서 형제들에게 말해야 할 명백한 것이 있었는데 나는 감히 이것을 보류할 수 없었다. 소금은 그 맛을 잃었으며 정금이 희미하게 되었다. 영적 흑암이 백성들 위에 임하여 있었으며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아래로부터 이르러 온 세력에 의하여 움직여지고 있음을 입증하였는데 이는 그 결과가 그들이 하나님의 영의 조명 아래 있지 않은 경우와 흡사하였기 때문이었다.

기록하는 천사에 의해 작성되는 역사의 장이 어떠한 것인가! 누룩은 실로 신속하게 작용하였으며 거의 모든 덩어리를 부풀게 하였다. 나는 분명 내 형제들을 위한 책망과 경고의 기별을 가지고 있다. 나의 영혼은 고뇌로 놀려 있다. 이것을 내 형제들에게 말하는 것은 그것을 제시받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일으키는 그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내게 일으킨다. 나는 먼 눈들을 주님께서 열어 주시기를 희망하고 기도하면서, 목회를 하는 내 형제들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서도록 강권하는 거룩한 능력을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경험하였다. 나는 나의 비서가 속기로 기록한 그 말들을 말할 힘을 얻었다. -원고 24, 1888년”(3기별, 167-179, 175, 176)

## 큰 외침의 시작

[연구범위]

목사와 복음교역자에게 보내는 증언, 404~415; 화잇주석, 사 53:5~58:12, 14.

기억절 :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계 18:1)

서론 : “요한계시록 18장에 예언된 바와 같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짐승과 그의 우상에 대하여 최후의 경고를 하는 자들에 의하여 큰 능력으로 선포될 것이다.”(8증언, 118)

###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남

1. 또 다른 천사의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으며, 하나님의 사자로 택함을 받은 자는 누구였는가?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계 18:1)

“주님께서서는 크신 자비를 베푸셔서 와그너와 존스 목사를 통하여 당신의 백성들에게 귀중하기 그지없는 기별을 보내셨다. 이 기별은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희생제물되신, 높이 들리우신 구세주를 세상 사람들에게 더욱 분명하게

증거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기별은 담보물되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증거하였으며 그것은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도록 초청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난다.”(목사, 91, 92)

“시련의 시기가 우리에게 임박하였는데, 이는 죄를 사유하시는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심으로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온 땅을 영광으로 환하게 할 천사의 빛의 시작이다.”(1기별, 363)

2. 1888년 와그너와 존스 목사를 통하여 전해진 기별이 온 땅을 영광으로 환하게 할 천사의 빛의 시작이라면, 그 절정을 위하여 이 기별은 어떻게 전진될 것인가?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잠 4:18)

---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밝음, 영광, 능력은 셋째 천사의 기별과 연결되어야 하며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전파되는 곳마다 확신이 뒤따를 것이다. 우리 백성들 중 어느 누가 이 빛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할 때를 알 것인가? 그럼에도 우리는 이 기사에 응답이 되는 빛을 아직도 확실히 보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빛을 갖고 계시며 이것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은 뜻뜻미지근한 상태로 남아있는 죄스러움을 알게 되고 그들은 참된 증인의 권면에 주의할 것이다.”(리뷰, 1880.4.1)

## 제거되어야 할 장애물

3. 계시록 18장 천사의 빛, 곧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의 기별을 받아들인 영혼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히 10:22)

---

“만일 우리가 그의 영광으로 땅을 환하게 할 영광스러운 천사의 빛을 받아

들었다면, 우리 심령이 정결하게 되고 자신을 비우고 하늘로 향했을 것이며  
늦은 비를 위한 준비가 될 것임을 알게 하라. 땅을 그의 영광으로 환하게 할  
천사의 선포에 연합하는데 적합하게 하라.”(영문시조, 1892.8.1)

#### 4. 늦은 비를 받기에 합당한 백성들을 준비시키기 위하여 내려온 계시록 18장 천사의 사업을 방해하려고 사단은 얼마나 격렬하게 노력할 것인가?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  
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중에서 쇠패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 하  
거니와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  
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  
자야 너는 네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가 구원치 못할 것이  
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인하여는 살지 못하리라”(겔 33:10-12)

“사단은 한 백성으로서 우리 중에 우리를 견책하고 책망하며, 우리의 과오  
를 내버리라고 권고하는 일이 전혀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궤를 지게 될 어떤 백성이 있다. … 과거에  
하나님께서서는 인물들을 일으키셨고, 여전히 그분께는 당신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준비되어 기다리고 있는 때에 맞는 인물이 있다. 그들은 서투르게 회반  
죽으로 쌓아 올린 벽이나 다름없는 제지들을 뚫고 나갈 인물들이다. 하나님께  
서 당신의 영을 인간들에게 주실 때, 그들은 일할 것이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  
을 선포할 것이다. 그들은 나팔처럼 그 목소리를 높이 날릴 것이다. 진리는 그  
들의 수중에서 줄어들거나 그 능력을 상실하지 않을 것이다.”(목사, 411)

### 참된 권면

#### 5. 1888년의 기별, 곧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과 이사야58장의 예언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계 3:18)

“하나님께서서는 이 시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크게 외치고 아까지

아니할 사람들’,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집에 그 죄를 고할 사람을 일으키셨다. 그들의 사업은 율법을 선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위한 진리, 곧 ‘여호와 우리의 의’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것이다.”(리뷰, 1889.8.13)

“우리들은 그들이 소유하고 있지 못한 어떤 것 즉 그들이 믿음과 사랑의 금과 그리스도의 의인 흰옷과 영적 식별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자들이 있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리뷰, 1889.7.23)

“그대는 라오디게아 기별을 분명 하고도 똑똑한 말로 전파하기 위하여 지극히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지 않으려는가? 위기를 바라보고 경고를 발할 하나님의 파수꾼은 어디에 있는가? 성령의 영감 아래에서 인간의 입술로부터 기별들이 흘러나올 것이라고 확신하라.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네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 집에 그 죄를 고하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 마치 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의 규례를 폐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사 58:1, 2).”(목사, 296)

## 6. 말세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되는 것은 무엇인가?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변할 줄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눅 12:56)

---

“그리스도인들은 머지않아 이 세상에 일어날 놀라운 사건을 위하여 준비하여야 하며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계명에 저희 생애를 일치시키려고 노력함으로 이러한 준비를 해야 한다.”(선지, 625, 626)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할 참된 경건의 부흥은 우리의 모든 필요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고 가장 긴급한 것이다. 이러한 신앙 부흥을 일으키는 것이 우리의 첫째 사업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주님의 축복을 받기 위한 열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바 하나님께서 당신의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고 싶지 않으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1기별, 121)

## 안약(분별력)

7. 이사야 58장 1~3절에 언급된 예언은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는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네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허물을, 야곱 집에 그 죄를 고하라 …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심은 어찌이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 주지 아니하심은 어찌이니이까 하느니라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사 58:1, 3)

.....

“여기에 나오는 경배자들은 한편으로는 울고 통곡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의 울지 못한 성벽들을 그대로 갖고 있었다. 그들의 마음은 낮추어지지도 않았고 영적으로도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고, 부드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소낙비를 받지 못하였다. 그들에게는 성령이 없으며, 감미로운 하늘의 감화도 없다.

조금도 회개한 기미를 보이지 않으며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영혼을 순결하게 하는 믿음도 없다. 그들의 거래 관계는 이기적이고 공정치 못하며, 자기보다 좀 못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억압한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보여 주시지도 않고, 또 그들이 의롭기 때문에 의당 다른 사람들보다 높임을 받아야 하는데도 높여 주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비난하였다.”(화잇주석, 사 58:1-5)

“은혜의 내적인 역사가 필요하다. 영혼의 검비함이 필수적이다. 하나님은 이것을 자세히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그 앞에 마음을 겸손히 하는 사람들을 은혜로 받으실 것이다. 그들의 간구를 들으실 것이요, 그들의 죄를 고쳐주실 것이다.(원고 33, 1903년)”(화잇주석, 사 58:5-7)

8.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참된 “금식”은 무엇이었는가? 영혼들의 진정한 필요를 채워주기 위하여 1888년 기별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토의해보라.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 주며 멍에의 줄을 끌러 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주린 자에게 네 식물을 나눠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네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사 58:6, 7)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약 1:27)

마 25:34~40.

“우리들 주변에는 고민하는 영혼들이 많다. 이런 영혼들을 찾아내어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때에 합당한 말을 해 주자. 여기저기 그리고 사방에서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발견할 것이다. 그들에게 언제나 신선한 온정의 물결이 흘러가게 할 수 있는 통로가 되자. 주린 사람들과 고민하는 사람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려고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방향 감각을 잃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당혹감 속에서 고민하고 있는 우리들,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찾아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들에게 희망과 용기의 말을 해 주어야 한다. 이 일을 하기 시작할 때에 하늘의 빛이 그대가 따라가야 할 길을 보여줄 것이다. 번민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던져준 그대의 위로의 말로 우리 자신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줌으로써 우리 자신이 도움을 받을 것이다.”(화잇주석, 사 58:9, 10)

## 외적 역사

9. 또 다른 천사의 기별(계 18장 천사)을 받아들인 자의 특징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주린 자에게 네 심정을 동하며 피로와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케 하면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네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케 하며 네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 댄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사 58:9-11)

사 58:12~14.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실천함으로서 우리 앞에 행하는 의를 갖고 있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보답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의의 빛은 우리 앞에 호위가 되고, 우리의 보답은 주께 영광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보장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자. 하늘에 계신 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자리에 그대로 계속 서 있도록 하자. 하나님과 연결되는 일, 곧 그분의 도우시는 손길이 되는 것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라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자.

잃어버린바 된 인류의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에서 그분께서는 인간 대리자들을 그의 도우시는 손으로 쓰고자 하셨다.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인간의 돕는 손이 있어야 한다. 그분은 재빨리 기회를 포착하고, 동료 인간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알아서 활동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협력이 필요하다(노트북 23번 1).”(화이트주석, 사 58:8)

#### 10. 계시록 18장 천사의 사업은 궁극적으로 어떤 놀라운 역사를 이룰 것인가? 어떤 보증의 말씀이 있는가?

“그리하면 네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네 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사 58:8, 9)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들은 의를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그 의는 앞으로 발전할 의요, 눈에 보이게 나타나야 할 의이며, 예수께서 세상에 계셨을 때에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품성을 대표하는 의이다(원고 43, 1908).”(화이트주석, 사 58:8)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어두움은 하나님께 대한 오해의 어두움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리고 있다. 하나님의 품성은 잘못 이해되고 그릇 해석되고 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이 전해져야 한다. 이 기별은 광범위한 감화력과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품성이 널리 알려지게 해야 한다.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 곧 그분의 인자와, 긍휼과, 진리의 빛을 비취 주어야 한다. …

이 일은 이사가 선지자로 말미암아 아래와 같이 묘사되었다. ‘주린 자에게 네 식물을 나눠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네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네 빛

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네 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와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사 58:7, 8).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영적으로 어두운 한밤중에 당신의 교회를 통하여 비취짐으로써 낙담한 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해 준다.”(실물, 415-417)

## [상고할 말씀]

“끝이 가까이 이르러 올 때에 하나님의 종들의 증언들은 보다 결정적이고 능력이 있어서 매우 오랫동안 최상권을 누려온 오류와 압박의 조직체들 위에 빛을 비추일 것이다. 주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를 위한 기별을 보내셔서 기독교를 영원한 기초 위에 세우려 하신다. 현대진리를 믿는 사람은 모두 다 자기 지혜 위에 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에 서서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다시 세워야 한다. 이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책들 속에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들이라,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고 기록될 것이다. 우리는 가장 흑심한 반대에 부딪혔을 때에도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를 주장해야 한다.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 가운데서 일하고 계신다. 사람만 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빛을 비추는 크신 능력이 그리스도께로부터 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모본을 백성들 앞에 제시하되 분명한 빛 가운데서 밝히 드러내게 해야 한다(편지 1f, 1890).”(화잇주석, 사 58:12~14)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들은 의를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그 의는 앞으로 발전할 의요, 눈에 보이게 나타나야 할 의이며, 예수께서 세상에 계셨을 때에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품성을 대표하는 의이다(원고 43, 1908).”(화잇주석, 사 58:8)

## 또 다른 천사의 경고

[연구범위]

각 시대의 대쟁투, 603~612; 가려뽑은 기별 2권, 113~118.

**기억절 :**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의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계 18:2)

**서론 :** “기다리고 있던 자들 위에 비취고 있던 빛은 세상 곳곳을 살살이 비췌며, 어느 정도의 빛을 받았지만 세 천사의 기별을 듣지도, 거절하지도 않았던 자들이 이 초청에 응하여 타락한 교회들을 떠났다.”(초기, 278)

### 교회들의 형편

1. 은혜의 시기가 끝나기 전에,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어떤 상태에 처하게 될 것인가?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의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계 18:2)

“이 성경절[계 18:1, 2, 4]은 계시록 14장의 둘째 천사가 선포한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기별이 반복하여 전해지는 때를 가리켜 준다(계 14:8 참조). 그리고 그것은 1844년 여름에 그 기별이 처음 선포된 이래 바벨론을 구성하고 있

는 모든 단체에 침투된 타락의 상태를 첨가해서 말해 준다.”(쟁투, 603)

“[계 18:1~5 인용] 이처럼 그의 영광으로 온 땅을 환하게 한 다른 천사에 의해서 둘째 천사의 기별의 내용이 또다시 이 세상에 전하여진 바 되었다.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날에 이 모든 기별들이 하나로 혼합되어 백성들에게 전하여지게 될 것이다. 온 세상이 시험을 치르게 될 것이며 넷째 계명의 안식일에 관하여 오류의 흑암 속에 있던 모든 자들이 인류에게 전하여질 마지막 자비의 기별을 깨닫게 될 것이다.”(2기별, 116)

2. 이사야 선지자는 마지막 때의 교회 상태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자칭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만 가진 교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 날에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니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여 우리로 수치를 면케 하라 하리라”(사 4:1)

계 17:5; 18:5.

---

“진리를 거절할 때마다 사람의 마음은 더욱 어둡고 더욱 완고해져서 그들은 마침내 대담한 불신으로 무장하게 된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를 무시하여 십계명 중 한 계명을 계속해서 범하고 마침내 그들은 그 계명을 거룩히 지키는 사람들을 박해하게 되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말씀과 당신의 백성에게 과해지는 멸시를 통하여 무시당하신다.”(쟁투, 603)

## 큰 외침

3. 아직도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하여 특별히 어떤 위대한 사업이 계시록 18장 천사에게 위탁되어 있는가?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계 18:4)

---

“하나님께서서는 바벨론 가운데 한 백성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기 전에 그 충성된 자들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계 18:5, 4)도록 불려냄을 받아야 한다. 그리하여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로 표상된 운동은 그의 영광으로 땅을 환하게 비추고 큰 음성으로 외치면서 바벨론의 죄를 지적하고 있다. 이 천사의 기별과 관련하여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음성이 들린다.”(쟁투, 604)

#### 4. 또 다른 천사의 큰 외침에 의해서 바벨론의 어떤 죄악이 드러날 것인가?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서 보였느니라 하더라”(계 18:3, 24)

.....

“큰 외침이 주어질 때가 오면 주님께서는 마음이 겸비한 자들을 통하여 일하시고 자신을 바쳐 주님께 봉사하는 자들의 마음을 지도하실 것이다. 믿음과 기도의 사람들은 거룩한 열심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도록 강권함을 받을 것이다. 저들은 바벨론의 죄상을 공개할 것이니 교회의 제도를 강제로 복종하게 하는 정권의 두려운 결과와 강신술의 침입과 조용하면서도 신속한 법왕권의 발전 등이 이 모든 것의 전체를 폭로할 것이다. 이러한 엄숙한 경고로 사람들은 동요될 것이다.”(예언의 신 4권, 424)

### 큰 외침의 절정

#### 5. 복음사업의 초기 제자들에게 표적과 기사가 수반되었던 것처럼, 또한 마지막 큰 외침에는 어떤 표적이 따를 것인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라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막 16:17, 18, 20)

.....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다.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고, 다른 이적들이 행해졌다. 심지어 오순절의 큰 날 전에 나타난 것과 같은 중재의 정

신이 보였다. 수백, 수천의 사람들이 가정들을 방문하고 그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있는 것이 나타났다. 사람들의 마음은 성령의 능력으로 각성되었고 참된 회심의 정신이 나타났다. 사방에서 진리의 선포에 대하여 문을 활짝 열었다. 세상은 하늘의 감화로 환하게 빛나는 것처럼 보였다.”(9증언, 126)

“하나님의 종들은 거룩한 헌신으로 빛나고 밝은 표정을 얼굴에 짓고, 하늘에서 온 기별을 선포하기 위하여 이곳에서 저곳으로 분주히 왕래할 것이다. 온 세상은 무수한 음성으로 경고를 받을 것이다. 이적들이 일어나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게 될 것이며, 표적과 기사들이 믿는 사람들에게 따를 것이다.”(쟁투, 612)

## 6. 이때를 즈음하여 사단의 세력에 의해서도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마 24:24)

.....

“사단도 또한 거짓 기사들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의 눈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게까지 할 것이다(계 13:13 참조). 이리하여 세상의 거민들은 그들의 입장을 분명히 취하게 될 것이다.”(쟁투, 612)

## 충실한 종들

## 7. 큰 외침 때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들로 부르심을 받게 될 것인가? 그 이유가 무엇인지 토의해보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라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라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시라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고전 1:26-28)

약 2:5.

.....

“주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무식한 자들과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을 취해서 나의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고 영혼 구원 사업에서 나의 목적을

수행할 것이다. 자비의 마지막 기별은 나를 사랑하고 경외하는 한 백성에 의해 주어질 것이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속 4:6). 우리는 자원하여 헌신하는 사람들이 전진하도록 하며 겸손한 방법으로 원칙에 충성하고 하나님께 성실함을 나타내도록 가능한 모든 용기를 주어야 한다.”(리뷰, 1905.9.21)

“지성과 비상한 재주와 재능을 의지해 온 자들은 그때에 일반 대중의 선두에 서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빛에 보조를 맞추지 않았다. 불성실한 자로 드러난 자들에게는 그 때에 양떼가 맡겨지지 않을 것이다. 불과 소수의 위대한 사람들만이 마지막 엄숙한 사업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자부심이 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께서 그들을 사용하실 수 없다. 주님께서서는 성실한 종들을 갖고 계시는데 그들은 흔들고 시험하는 시기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5증언, 80, 81)

## 8. 하나님의 충실한 종들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 마지막 경고를 할 것인가?

“불법이 성하므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마 24:12)

눅 6:22.

---

“교회가 평화와 번영의 때에 하지 못한 사업은 가장 절망적이고 어려운 환경 아래 무서운 위기 가운데서 해야 할 것이다. 세상과 일치되므로 침묵해 버렸거나 억제되었던 경고들은 믿음의 원수들 때문에 생긴 가장 심한 반대 아래 전해져야 한다. 그리고 그 때가 되면 그들의 영향으로 꾸준히 사업의 발전을 방해해 온 피상적이고 보수적인 계층은 믿음을 버리고 오랫동안 동조해 온 진리의 공공연한 원수들과 입장을 같이 할 것이다. 신앙을 버린 이 사람들은 가장 심한 적의를 나타내고, 그들의 이전 형제들을 억압하고 중상하고 그들에 대하여 분노를 일으키기 위하여 힘을 다하여 활동할 것이다. 이런 날이 우리 앞에 박두해 왔다. 교인들은 개인적으로 시험을 받고 시련을 겪을 것이다. 그들은 진리를 증거하도록 강요당할 환경에 처해질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아마도 개별적으로 혹은 혼자서 의회와 법정에서 이야기하도록 소환당할 것이다. 그들은, 이 비상사태에 그들에게 도움이 되었을 경험을 얻는 일을 등한히 해 왔다. 그러므로 그들의 심령은 낭비한 기회와 등한히 한 특권들에 대한 trách으로 놀리게 된다.”(5증언, 463)

## 큰 관심사

9. 은혜의 문이 열려있는 동안, 무엇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큰 관심사가 되어야 하는가?

“때가 아직 낮이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요 9:4)

---

“마치 밤중에 도둑이 소리 없이 접근하듯이 부지불식간(不知不識間)에 끝이 우리에게 다가와 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더 이상 졸지 말고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있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주께 기원한다. 진리는 미구에 영광스럽게 승리할 것이며, 지금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기로 택하는 모든 자들도 진리와 함께 승리할 것이다. 시간은 짧다. 미구에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올 것이다.”(9증언, 135)

10. 세상을 경고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나타나는 어떤 특징이 경고가 될 것인가?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취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 5:16)

---

“고상하고 거룩한 원칙들을 실천하면서, 고상하고 거룩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계명을 발로 짓밟는 사람들 간의 경계선을 보여주면서, 진리를 믿고 진리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을 보여줌으로써 세상은 경고를 받을 수가 있다.”(화잇주석, 계 14:9-12)

“신랑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은 백성들에게 ‘너희 하나님을 보라’고 외쳐야 한다. 세상에 비칠 마지막 자비의 빛 곧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마지막 공훈의 기별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 그들은 저희의 생애와 품성을 통하여 저희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야 한다.

의의 태양 광선이 선행 곧 진실한 말과 거룩한 행실을 통하여 비취지도록 되어 있다.”(실물, 415, 416)

“모든 사람은 저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귀한 은혜와 그분의 측량할 수 없는 부요함이 세상에 나누어질 수 있는 산 통로가 될 특권을 가졌다. 그리스도께서는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서 당신의 영과 품성을 대표할 자들을 가장 크게 원하신다. 사람을 통하여 구주의 사랑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보다 더 절실한 요구는 없다. 온 하늘은 사람의 마음에 즐거움과 축복이 될 거룩한 기름을 부어 줄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할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실물, 419)

## [상고할 말씀]

“기별은 변론으로 전해지기보다 하나님의 영의 깊은 감동으로 전해질 것이다. 변론으로는 벌써 제시되었다. 씨앗은 이미 뿌려졌으므로 이제는 그것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선교인들에 의하여 전달된 인쇄물들은 감화력을 발휘해 왔다. 그러나 감동을 받은 많은 사람들은 진리를 충분히 이해하거나 순종하는 일에 장애를 받아 왔다. 이제는 밝은 광선이 각 곳으로 뚫고 들어가서 진리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정직한 자녀들은 그들을 결박하고 있던 줄을 끊어 버리게 된다. 이제는 혈연 관계, 교회 관계가 그들을 붙들어들 수 없을 정도로 무력해진다. 진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더욱 귀중하다. 여러 기관들이 진리를 대적하기 위하여 결속하였을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편에 서게 된다.”(쟁투, 612)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어두움은 하나님께 대한 오해의 어두움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리고 있다. 하나님의 품성은 잘못 이해되고 그릇 해석되고 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이 전해져야 한다. 이 기별은 광범위한 감화력과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품성이 널리 알려지게 해야 한다.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 곧 그분의 인자와, 긍휼과, 진리의 빛을 비취 주어야 한다.”(실물, 415)

# 셋째 천사의 기별에 힘과 능력을 줌

[연구범위]

가려뽑은 기별 2권, 104~107, 115~118.

**기억절 :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사 60:1)**

**서론 : “하나님의 영광이 영적으로 어두운 한밤중에 당신의 교회를 통하여 비취짐으로써 낙담한 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해 준다.”(실물, 417)**

## 현대진리의 중요성

1. 현대진리와 하나님의 영광(품성)은 영혼들의 완전한 구원(인침)에 있어서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살후 2:13)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벰후 1:10-12)

고전 15:1, 2.

“진리와 하나님의 영광은 분리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소유하고서도 그릇된 견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은 생애만 올바르면 무엇을 믿어도 상관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생애는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만일 우리의 손이 미치는 범위 안에 빛과 진리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보고 들을 특권을 이용하기를 게을리하면 우리는 사실상 그것을 거절하게 되고 우리는 빛보다 어두움을 택하고 있는 것이다.”(쟁투, 597)

“사단은 이 인치는 시기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현대진리에서 돌이켜 그들이 흔들리도록 하기 위하여 온갖 계략을 다 쓰고 있다. 나는 하나님께서 환난의 때에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하여 그들을 덮어 씌울 덮개를 가지고 계시는 것을 보았다. 진리편에 서서 마음을 순결하게 보존한 영혼에게 전능자의 보호막이 씌워질 것이다.”(초기, 43)

“오늘날 양떼들에게 필요한 것은 ‘현대 진리’이다. 나는 기별자들이 현대 진리의 핵심에서 벗어나 양떼를 결합시키고 영혼들을 성화시키는 일에 적합치 않은 주제들을 강조할 위험을 보았다. 사단은 하나님의 사업을 망치기 위하여 이 일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초기, 63)

## 2. 선과 악의 대쟁투에서 우리는 어떻게 무장되어야 하는가?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 현대진리(신무기)의 중요성을 토의해보라.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엡 6:11-13)

엡 6:14~18.

“교리들을 밝히 깨달아야 한다. 진리를 증거하도록 받아들인 사람들은 저희의 닦을 내려야 한다. 그렇게 할 때 닦이 저들을 견고하게 붙잡으므로 태풍과 폭풍우를 견딜 수 있게 될 것이다. 속임수들은 증가할 것이다. 우리는 반역을 명칭 그대로 서슴지 않고 반역이라고 불러야 한다. 우리는 전신 갑주를 입고 굳게 서야 한다. 이 투쟁에 있어서 우리는 사람들만을 대적하게 될 것이 아니

라 ‘정사와 권세’(엡 6:12)까지도 대적해야 한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뿐이 아니다.”(2기별, 395)

“나는 현대 진리의 부족으로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과 진리를 믿노라고 공언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지 않으므로 그들이 멸망에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초기, 49)

## 진리의 사랑을 거절하는 위험

3. 현대진리(계시록 18장 천사)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영혼들에게 어떤 경험을 다시 반복하게 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딤후 4:3, 4)

.....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그 전에 전했던 두 천사의 기별을 체험하지 못하였다. 사단은 그것을 알고 그의 악한 눈을 그들에게 돌려 저들을 넘어뜨리려 하였다. 그러나 셋째 천사는 저들을 지성소로 향하게 하였으며 과거의 기별들에 경험을 가진 자들은 그들에게 하늘 성소의 길을 가리켜 주었다. … 이 기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닳이 된다고 하였다. 이 기별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자들은 사단의 수많은 미혹에 빠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초기, 256)

“나는 세 단계로 되어있는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보았다. … 모든 영혼들의 운명은 이 기별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달려있다.’ 나는 이 기별의 시종(始終)을 다시 살펴보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는 경험들을 보았다.”(초기, 258, 259)

“사단은 이 기별들의 주변에 그림자를 던지고자 끊임없이 노력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기별의 의미와 시간과 장소를 분명히 분별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6증언, 18)

4. 현대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들은 어떤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인가? 우리는 어떤 위험을 경계해야 하는가?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살후 2:10)

살후 2:11, 12; 마 24:24(하단).

---

“사단은 세상에 다가오고 있는 전반적인 멸망에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도 포함되기를 바란다. 그리스도의 오심이 가까울수록, 그들을 정복하기 위한 그의 활동은 더 한층 확고하고 결정적이 될 것이다. 남녀들이 어떤 새로운 빛이나 어떤 새로운 계시를 받았노라고 공언하면서 일어날 것인데, 그들의 경향은 옛 지계표를 믿는 믿음을 흔드는 것이 될 것이다. 그들의 교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지니고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영혼들은 속임을 당할 것이다.”(5 증언, 295; 1885년)

## 약속된 도움

5.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진리를 소유한 셋째 천사에게 왜 계시록18장의 또 다른 천사를 보내실 필요가 있었는가? 왜 셋째 천사에게 힘과 능력이 요구되었는가?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계 18:1)

계 3:15~17.

---

“택함을 받은 백성인 우리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할 때 감동을 줄 수 없는 애매한 방법으로 전할 위험이 있다. … 우리의 기별은 생사의 문제가 달린 기별이며 또한 우리는 마땅히 그 기별 그대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보여 주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노력을 효과적으로 만들 것이다. 우리는 기별의 모든 뚜렷한 능력을 힘입어 진리를 증거 해야 한다.— 서신 209, 1899년”(전도, 230)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파하는 일이 묶여 있도록 사태를 꾸미고 있다.”(전도, 230)

“그때 나는 다른 힘센 천사가 명령을 받고 셋째 천사와 연합하여 그의 기별에 능력과 힘을 주기 위하여 지상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초기, 277)

6. 힘과 능력을 주는 또 다른 천사가 셋째 천사와 연합함으로 셋째 천사는 어떤 힘을 얻게 되며, 무엇이 그 사업의 결과인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사 60:1, 2)

“셋째 천사의 기별은 땅에 전파되어 백성들을 깨우고 그들의 관심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으로 향하도록 해야 한다. 또 다른 천사는 그의 목소리를 셋째 천사와 연합하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진다. 빛이 증가되고 땅에 있는 모든 민족에게 비춘다. 기별은 타오르는 빛처럼 전해져야 한다. 그 황금 빛이 여러 방언과 여러 백성과 여러 나라에 비출 때까지 큰 능력이 동반할 것이다. … 그대는 이 천사가 세상에 전하려고 이 기별을 가진 백성을 상징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대는 그 백성 가운데 있는가?”(리뷰, 1885.8.18)

“그때 나는 다른 힘센 천사가 명령을 받고 셋째 천사와 연합하여 그의 기별에 능력과 힘을 주기 위하여 지상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가오는 시련의 때에 설 수 있는 준비가 갖추어지는 것이다.”(초기, 277)

“주님께서는 크신 자비를 베푸셔서 와그너와 존스 목사를 통해 그분의 백성들에게 지극히 소중한 기별을 보내셨다. … 그것은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도록 초청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난다.”(목사, 91, 92)

“이러한 기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큰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고 또 그들이 당신의 모든 계명들을 지킬 수 있는 위치로 끌어올리셨던 것이다.”(초기, 249)

## 과거의 잘못에서 배울 교훈

7. 유대인들은 그렇게도 고대하던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왜 거절했는가? 그들의 잘못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경고가 되어야 하는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요 1:11)

눅 24:20, 21.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분은 그들이 오실 것으로 예견했던 그대로 오시지 않으셨다. 그리고 만일 그분이 약속된 분으로 영접을 받았을 것 같으면 학식 있는 그들의 교사들은 그들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 지도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스스로를 분리시켰으며, 사단은 그들의 마음에 역사하여 그들로 하여금 구주를 거절하게 했다. 그들의 교만한 의견을 굴복시키기는 커녕 그들은 그분의 메시아성에 관한 모든 증거에 대하여 눈을 감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구원의 기별을 스스로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을 무감각하게 만들어서 예수님을 대적하게 했다. 그들의 역사는 우리들에게 엄숙한 경고가 되어야 한다. … 그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신과 질투와 의혹을 일으키기 위하여 활동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빛을 거절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 빛은 우리를 즐겁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오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심판의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해서는 안 된다.”(5증언, 728)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큰 사업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큰 추수 때의 도움을 얻기 위하여 그분께 기도를 올린다. 그러나 그들이 기대한 모양대로 도움이 오지 않을 것 같으면, 그들은 그것을 받지 않을 것이며, 그리스도의 초림 광경에 실망하여 그리스도에게서 돌아선 유대 민족처럼 그것으로부터 돌아서고 말 것이다.”(2증언, 142; 1868년)

8. 하나님께서는 위기의 때마다 사람들에게 항상 기회(은혜)를 주시고 문을 크게 열어놓고 계심을 설명해보라. 주님께서 특히 1888년 이후 어떤 큰 필요를 강조해 오셨으며, 동시에 어떤 경고를 주셨는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사 55:6)  
행 3:19.

---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계 2:5). 지금 주어진 기회는 짧은 것이다. 만일 이 은혜와 회개의 기회를 이용하지 않은 채 지나가 버리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계 2:5)는 경고가 주어진다. 이 말씀은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이다. 이것들은 결코 주무시지 않으시는 관찰자께서 그들의 행위를 살피고 계시면서 교회와 개인들에게 주시는 엄숙한 경고이다.”(5증언, 612; 1889년)

## 두 무리

9.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을 거절한 자들에게 옛날 유대인들의 어떤 잘못이 하나의 경고로서 주어졌는가?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눅 11:52)

---

“모든 영혼은 반드시 통회와 겸손한 마음으로써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를 인도하시며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대할 것이다. 결코 다른 사람이 자기를 위해 대신 성경을 연구해 주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

많은 우리 형제들의 영적 눈이 어두워진 것을 보고 하늘에서는 슬퍼한다. … 더욱 분명한 빛이 백성들에게 임하지 못하도록 길을 방해하는 자들 위에 여호와의 저주가 임할 것이다. 아직도 이루어야 할 큰 사업이 있다. 그러므로 … 그들에게 더 많은 빛이 필요함을 아신다. 하나님께서는 사자들을 일으켜 그들 위에 성령을 부으시고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네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 집에 그 죄를 고하라’(사 58:1)고 명령하셨다. 그러므로, 아무도 백성들과 하늘의 기별과의 사이를 막지 말라. 이 기별은 반드시 백성들에게 도달될 것이다. 만일, 사람들 가운데 그 기별을 전할 자가 없다면, 돌들이 일어나 외칠 것이다.”(복음, 303, 304)

## 10.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자들 가운데 어떤 분열을 피할 수 없는가?

“여호와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사 55:8, 9)

---

“지금 해야 할 사업은 이 마지막 자비의 기별을 타락한 죄악 세상에 경고해 주는 일이다. 새로운 생명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로잡을 것이다. 그러나 교회 안에 분열이 있을 것이다. 두 무리가 형성될 것이다. 알곡과 가라지는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된다.

사업은 보다 널리 발전할 것이며 최후 순간에 이를 때까지 더욱 열렬한 상태로 사업이 전개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모든 자들은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유 3)위하여 가장 열렬하게 싸울 것이다. 저들은 현대의 기별을 거역하지 않을 것이며 그 기별의 영광은 벌써 이 세상을 환하게 비춰주고 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싸우는 것에 투쟁의 가치가 있다. 쓰러지지 않고 영원히 설 유일한 반석은 만세 반석이신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그 진리만이 오류로 가득 찬 이 시대의 피난처가 된다.”(2기별, 114; 1896년)

### [상고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와 예언을 통하여 진리와 오류 사이에 계속되는 장기간의 투쟁을 묘사하고 있다. 그 투쟁은 아직도 진행 중에 있다.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이 반복될 것이다. 옛날에 있었던 논쟁점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며 새로운 이론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믿음과 예언의 성취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선포하는 일에 한 역할을 맡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잘 알고 있다. 저들에게는 정금보다 더 보배로운 경험이 있다. 저들은 바위처럼 견고하게 서야 하며 처음에 가졌던 신뢰심을 끝까지 확고부동하게 유지해야 할 것이다.

셋째 천사의 기별에 따르는 것처럼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전파하는 일에도 변화시키는 능력이 따랐던 것이다. 내구력이 있는 회개의 심령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 크게 작용하였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바 되었다. 성경의 중요한 진리들을 낱알이 살피며 열심히 연구하였다. 거의 밤을 새워가며 말씀을 연구하는 일에 몰두할 때가 많았다. 우리들은 숨은 보화를 찾는 것처럼 진리를 탐구하였다. 주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우리들에게 나타내셨다. 예언에 관하여 빛이 비추어졌으며 우리들은 거룩한 지시를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

주님께서는 성령께서 당신의 종들로 과거에 전파케 하셨던 진리를 지금에 와서 거절하도록 사람들을 인도하시지 않으실 것이다.

과거에 사람들이 말씀을 탐구하였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빛을 받기 위하여 공정한 마음으로 말씀을 연구할 것이다. 그러나 저들은 이러한 경고의 기별들이 처음에 전파되었을 때에 저들이 겪어야 할 경험을 체험하지 못하였다. 과거에 이러한 경험을 맛보지 못함으로 인해서 어떤 자들은 지금껏 우리들에게 이정표 구실을 해 주고 우리들을 오늘날의 특이한 백성으로 만들어 준 진리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한다. 저들은 성경을 올바르게 적용하지 못함으로써 바르지 못한 이론들을 구상해 낸다. 저들이 성경절들을 많이 인용하며 참된 것을 많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진리가 오류와 혼합되어 있음으로 으레히 그릇된 결론에 이르게 된다. 저들은 저들이 주장하는 이론 가운데 성경절들을 엮어 넣을 수 있다고 해서 저들이 똑바른 진리의 고리줄을 가지고 있는 줄로 생각한다. 기별의 초기에 있었던 경험을 맛보지 않은 자들은 오류에 속한 이론들을 받아들여지게 되며 거저된 길로 인도되고 전진하는 대신에 후퇴하기에 이르게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이 원수의 계략이다.”(2기별, 109~111)

## 참된 셋째 천사의 기별

[연구범위]

가려뽑은 기별 1권, 372; 실물교훈, 115~121.

**기억절 :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롬 1:17)**

**서론 : “여러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기별이 셋째 천사의 기별 이냐고 편지로 나에게 물어 왔으며 나는 ‘그것은 참된 셋째 천사의 기별 이다’라고 했다(리뷰 앤드 헤랄드, 1890년 4월 1일).”(1기별, 372)**

### 셋째 천사의 기별

1. 성경에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침을 얻지 못 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계 14:9-12)

“셋째 천사의 기별이 세상에 전해졌는데, 이 기별은 사람들에게 짐승과 그

우상의 표를 이마에나 손에 받지 말라고 경고하는 기별이다.”(화이트주석, 계 14:9-12)

“예수께서 성소의 봉사를 끝내시고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율법이 들어 있는 법궤 앞에 서 계실 때 세 번째 기별을 가진 힘센 천사를 세상에 보내셨다. 그는 손에 두루마리를 들고 능력과 위엄으로 이 지상에 내려오면서 인간이 아직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가장 두려운 경고를 선포하였다. 이 기별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들에게 닥쳐오는 시련과 고통의 때를 보여 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경계하도록 주어진 것이다.”(초기, 254)

## 2. 화이트 선지자는 짐승과 그의 우상과 싸울 자들에게 무엇이 확고해야 함을 지적하셨는가? 또 다른 천사의 기별(1888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 왜 영생의 소망을 확고하게 하는 기별인가를 토의해보라

“그 천사는 ‘그들은 짐승과 그 우상과 접전을 하게 될 것이다. 영생에 대한 그들의 소망은 확고해야 할 것이다. 그들은 생명이 위험할지라도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이렇게 끝을 맺는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는 이 말을 반복하면서 하늘 성소를 가리켰다. 이 기별을 깨닫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지성소로 향하게 되었다.”(초기, 254)

“어떤 형제들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들이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여 적이 염려하고 있으나 나는 아무도 이 일로 인해서 놀랄 필요가 없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바이다. … 만약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철저히 가르치는 일에 태만과 부주의함이 없었다면 오늘 날에 와서 특별한 관심을 집중시킬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모든 의의 원수인 마귀가 꼭 그렇게 되도록 계획한 것처럼 성경 가운데 우리들에게 주신 바 굉장히 위대하고 고귀한 허락들을 대부분 잊어버리고 말았다. 마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참된 성품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도록 우리들과 우리 하나님 사이에 자기의 어두운 그림자를 늘어뜨린다. … 여러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기별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냐고 편지로 나에게 물어 왔으며 나는 ‘그것은 참된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라고 했다(리뷰 앤드 헤랄드, 1890년 4월 1일).”(1기별, 372)

“우리 기별의 중심은 예수의 사명과 생애가 되어야 한다.”(리뷰, 1888.9.11)

##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

### 3.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란 무엇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롬 3:24, 25)

.....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중생케 할 수 없다. ...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란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의 영광을 티끌 속에 내던지고,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인간을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 목사와 교역자에게 보내는 특별 증언(Series A, No. 9, 1897, 61, 62).”(목사, 456)

### 4. 1888년 와그너 형제가 영혼들에게 영생의 소망을 확고하게 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구원)의 기별을 전할 때, 화잇 선지자의 반응은 어떠하였는가?

“믿음은 바라(소망)는 것들의 실상이요 ...”(히 11:1)

.....

“나에게 이런 질문이 있었다. ‘당신은 이런 사람들이 제시하는 빛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지난 45년 간 그것-그리스도의 비할 데 없는 아름다움을 그대들에게 제시해 왔다. 이것이 내가 그대들의 마음에 제시하고자 노력해 온 것이다. 와그너 형제가 미네아폴리스에서 이 생각을 제시했을 때, 이것은 나와 남편 사이의 대화를 제외하고는 어떤 사람들의 입에서 들을 수 있는 것 중에 이 주제에 관한 첫 번째 분명한 가르침이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내가 이것을 그렇게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그것

을 내게 제시하셨기 때문이며, 그들은 내게 제시된 것처럼 결코 그것을 제시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것을 제시했을 때, 내 모든 심령의 조직은 아멘 이라고 말했다.”(1설교, 116; 원고 5, 1889년)

## 이 기별은 새 빛인가?

### 5. 이 기별은 새 빛인가? 그런데 왜 새 빛처럼 느껴지는가?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나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요일 2:7)

---

“E. J. 와그너 장로에게 율법과 연관하여 그리스도의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그의 견해를 제시하며 명백하게 말할 수 있는 특권이 허락되었다. 이것은 새 빛이 아니다. 오히려 셋째 천사의 기별에 마땅한 자리를 차지한 옛 빛이다. …

예수 믿음은 간과되고 무관심하고 부주의하게 취급되어 왔다. 그것은 요한에게 계시되었을 때의 그 뛰어난 위치를 차지하지 못해 왔다. 죄인의 유일한 희망으로서의 예수를 믿는 믿음은 행해진 설교에서뿐만 아니라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는다고 주장하는 매우 많은 사람들의 종교적 경험에서도 널리 배제되어 왔다. …

이것은 내게 새 빛이 아니었다. 이는 내게 지난 44년 동안 보다 높은 권위자로부터 이것이 주어졌기 때문이며 나는 그분의 영의 증언을 통하여 펜과 목소리로 우리 백성에게 이것을 제시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주제에 대한 증언에 동의한 몇 사람들 외에는 이에 대해 호응한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 이 위대한 문제에 대하여 말해지고 쓰여진 것이 매우 적다. 어떤 이들의 설교는 그리스도가 없는 가인의 제물과 같다고 묘사해야 옳을 것이다.”(3기별, 168, 169)

### 6. 온 땅을 그의 영광(품성)으로 환하게 하는 천사와 연합하지 않는다면, 어떤 위험에 처할 것인가?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취는 빛이 있었나니 …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요 1:9, 10)

“주님께서 우리의 실족을 보셨다. 주님이 전에 재림교회를 복 주시고 귀히 여겼기 때문에 재림신도들은 택하심을 받고 진리를 가졌다고 자만하였으며, 경고나 지시나 책망도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였다. … 참된 증인께서, ‘내가 사랑하나 책망하기도 하고 꾸짖기도 하느니라.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못마땅히 여기신 이유는 그 백성이 그리스도의 품성을 본받기에 너무도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들을 사랑하사 참된 증인 되신 이가 권고와 책망과 경고를 보냈음에도 그들이 기별을 받지 아니하였다.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강박한 마음을 녹이지 못한다는 말이 무엇이겠는가? … 하나님의 백성이 빛을 발하면, 교회와 세상에 예수님을 드러낼 것이고, 우리의 의 되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관심사가 될 것이다. 스스로 갈 길을 가려는 자나 하늘로부터 내려와 온 땅에 영광의 기별을 전하는 천사의 무리를 따르지 않는 자는 버림 받을 것이다. 그들이 없어도 하나님의 사역은 성취될 것이며, 그들은 승리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할 것이다.”(리뷰, 1890.12.23)

## 복음과 율법

### 7. 율법과 복음은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가?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롬 3:31)

“누구든지 복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율법을 올바르게 소개할 수 없으며, 또한 율법이 없이는 복음을 바르게 소개할 수 없다. 율법은 구체화된 복음이며 복음은 율법을 펼쳐 놓은 것이다. 다시 말하면 율법은 뿌리가 되고 복음은 향기 나는 꽃과 그 꽃이 맺는 열매이다.”(실물, 128)

“하나님께서서는 에덴 동산의 거룩한 부부에게 요구하셨던 바로 그것, 곧 하나님의 요구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오늘날에도 요구하신다. 그분의 율법은 모든 세대를 통해서 동일하다. 구약시대에 제시된 의의 위대한 표준은 신약시대에서 낮춰지지 않는다. 복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명령을 지킬 수 있는 곳으로 사람들을 끌어 올리는 것이다.”(믿음, 52)

## 8. 1888년 기별 자들에 의하여 전해진 복음은 율법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었는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계 14:12)

---

“셋째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제칠일 안식일 재림교인들은 하나님의 계명은 선포하였으나, 예수 믿음을 계명과 똑같이 중요하다고 선포하지는 않았다. 이 문제는 아무리 설명해도 부족하다. …

‘예수 믿음’에 대하여 이야기한 사람은 많았으나, 이 문제를 이해한 사람은 없었다. 셋째 천사 기별에 속하는 예수 믿음의 본질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구세주가 되기 위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것이다. 그분은 우리가 당해야 할 일을 당하셨다.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가져가셨는데, 이는 우리로 하여금 그의 의를 취하기 위함이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죽히, 완전히, 전적으로 구원하셨다고 믿는 것이 곧 예수 믿음이다. … 그리스도께서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사 53:5)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얻는 일’은 우리의 유일한 시대의 소망이요 영원히 사모할 노래이다.”(원고 24, 1888년)

“사람들은 예수 믿음을 간과해 버리고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여겼다. 예수 믿음은 요한이 생각했던 것처럼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다. …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는다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도 그 진리를 개인적으로 체험하지 못하였다.”(원고 24, 1888년)

“[미네아폴리스; 역자주] 집회에서 … 하나님이 종들로 하여금 세상에 전하라고 주신 오늘의 기별은 전혀 새롭거나 기이한 내용이 아니다. 사단이 것처럼 방해하여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게 된 옛 진리인 것이다. 우리 주님은 당신의 충성된 백성으로 하여금 예수 믿음을 꼭 있어야 할 자리인 셋째 천사의 기별 속으로 가져오도록 하셨다. 율법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의가 율법 옆에 놓여지고 의의 총체적이고 제약적 표준에 빛을 더하지 않으면 아무 힘이 없다.”(원고 30, 1889년)

## 모든 것을 삼키는 기별

9. 마지막 때 인간들에게 공개된 모든 빛들이 연합하여 어떤 진리로 공개될 것인가? 모든 문제를 삼켜버리는 진리는 무엇인가?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와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합 2:14)

---

“만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새 부대가 될 것 같으면, 그분께서는 새 술로 그들을 채우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더욱 더 빛을 주실 것이고 옛 진리들은 회복될 것이다. 그리하여 진리의 체계가 새롭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종들은 어디로 가든지 승리를 거둘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성경을 연구하고 오류의 쓰레기 아래 묻혀 있는 진리를 찾아내어야 한다. 그리고 받아들인 모든 빛줄기는 다른 사람에게 전하여져야 한다. 한 가지 관심이 만연될 것이고 한 가지 문제가 다른 모든 것을 삼켜버릴 것인데, 그것은 곧 ‘그리스도 우리의 의’이다”(리뷰, 1890.12.23)

10. ‘그리스도 우리의 의’라고 하는 진리는 어떤 놀라운 역사를 이룰 것인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사 11:9)

---

“한 가지 관심이 모든 것을 압도해 버렸고 한 가지 목적이 모든 다른 목적을 삼켜 버렸다. 모든 사람의 심장의 고통이 조화를 이루었다. 신자들의 유일한 욕망은 그리스도의 품성과 같은 품성을 나타내고 그의 왕국을 확장시키기 위하여 일하는 것이었다. ‘믿는 무리가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 …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온 회중에게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는 그들이 값진 진주를 발견했기 때문이었다.

이와 같은 일이 오늘날에도 반복되어야 하고 그때보다 더욱 큰 권능으로 반복되어야 한다. 오순절에 부어 주신 성령은 이른 비였다. 그러나 늦은 비는 더욱 풍성할 것이다.”(실물, 120, 121)

## [상고할 말씀]

“... 제일 중심에 두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셋째 천사의 기별에서 분리시켜서는 안 된다. 이 시대를 위한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둘째로 제쳐놓고, 이론과 논쟁을 첫째로 삼고 있다.”(리뷰, 1894.3.20)

“진리의 일꾼들은 그리스도의 의를 새로운 빛으로 제시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얼마동안 잃어버렸던 귀중한 빛으로 제시해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하면 그분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다.”(리뷰, 1894.3.20)

“아브라함과 마리아의 아들의 출생과 같이 사가랴에게 아들의 출생은 큰 영적 진리, 곧 우리가 느리게 배우고 쉽게 잊어버리는 진리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런 선을 행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도 순복하고 믿는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이다. 약속의 아들을 얻은 것은 믿음을 통하여 된 것이었다. 영적 생명을 낳게 하고 우리로 의로운 행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소망, 98)

# 거룩한 신임장

[연구범위]

가려뽑은 기별 1권, 359~364; 가려뽑은 기별 2권, 63~71.

**기억절 :**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 이로소이다”(요 17:23)

**서론 :** “현대의 기별 곧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기별이다. 이 기별의 열매는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것이므로 거룩한 신임장을 가지고 있다.”(1기별, 359)

## 거룩한 신임장

1. 무엇이 하나님의 거룩한 신임장이 되는가?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렘 23:6)

“만약 우리들이 하늘 아버지께 나아갈 통로를 찾으려면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들의 신임장으로 가져야만 할 것이다.”(1기별, 374)

“현대의 기별 곧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기별이다. 이 기별의 열매는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것이므로 거룩한 신임장을 가지고 있다.

저들에게 증거된 고귀한 진리를 크게 필요로 하면서도 그 기별의 혜택을 받지 못한 자들이 있다. 저들은 저희 마음문을 활짝 열어 예수님을 하늘의 손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므로 큰 손실을 당하게 되었다. 사실상 우리들이 걸어야 할 길은 좁은 길이며 매 발자국마다 십자가가 나타나 있다. 우리들은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렇게 할 때에 의의 태양이신 주님의 복스러운 빛으로 말미암아 가장 암담한 시간들이 환하게 밝아질 것이다.”(1기별, 359)

## 2. 또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어떤 상태가 세상 앞에 거룩한 신임장을 제시할 수 있는가?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요 17:23)

.....

“그리스도의 제자들 가운데 있어야 할 연합과 일치가 이 말씀 가운데 묘사되었다. ‘우리과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물려서서 그들이 배워야 할 모든 것을 다 배운 것처럼 생각하는가! ... 진영 밖에 서 있고자 선택한 자들은 진영 안에서 어떤 일이 진행 되는지를 알 수 없다. 그들은 안 뜰로 곧 들어와야만 하는데 이는 우리가 한 백성으로서 믿음과 목적에 있어서 연합하여야 하는 까닭이다. 이 연합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명에 관하여 세상으로 확신케 하며 또한 세상에 대하여 거룩한 신임장을 지녀야 한다.”(내가 그분을 알려하여, 172)

## 옛 지계표

### 3. 하나님께로부터 온 기별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거룩한 신임장이 없는 거짓 기별자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잠 25:14)

“잎사귀 마른 상수리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사 1:30)

.....

“하나님께로부터 온 기별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로 더불어 싸우는 대신에 허울만 갖추고, 싸우는 교회를

향해 무기를 들이대는 인물들이 일어날 때, 그들을 두려워하라. 그들은 거룩한 신임장을 갖고 있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떠한 수고의 짐도 맡기지 않으셨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기별을 통해 회복하시려는 것을 무너뜨릴 것이다. 그분이 상하게 하심은 오로지 고치기 위함이요,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에게도 교회를 좌절시키고 낙망시킬 기별을 지워 주지 않으신다. 그분은 책망하고 징계하시지만 그것은 결국 회복하고 승인하시기 위해서이다.”(목사, 22)

#### 4. 옛 지계표는 무엇이며, 그것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유다 방백들은 지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너희에게 물같이 부으리라”(호 5:10)

.....

“현재의 제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백성들을 형성시켜 놓은 진리의 어떤 부분도 약화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는 진리와 경험과 의무의 옛 지계표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 완전히 보는 데서 우리의 원칙들을 옹호하는 일에 확고하게 서야 한다.”(6증언, 17)

“우리의 유일한 안전은 옛 지계표를 보존하는 데 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히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사 8:20).”(5증언, 199)

### 현대진리

5. 이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진리는 옛 진리가 새롭게 되어 나타난다. 이 진리를 어떤 명칭으로 부르게 되는가? 이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본은 무엇인가?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현대진리; 역자주)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벧후 1:12)

.....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오고 세상에 마지막 경고의 기별을 전하는 사업이 확장될 때 현대진리를 받아들이는 자들은 증언들의 본질과 감화력에 대한 분명

한 지식을 갖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일이다. 이 증언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를 통하여 초창기부터 셋째 천사의 사업과 연결시키셨다.— 교회증언 5권 654 (1889)”(전도, 255)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친히 제정하시고 족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옛 진리를 당신의 교훈 속에 제시하셨다. 그러나 지금 그가 새로운 빛을 그 진리에 비추어 주심으로 그 뜻이 얼마나 판이하게 보이는가! 그의 설명에는 빛과 영성이 넘쳐 흘렀다. 그는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깨우쳐 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그들에게 계시되도록 하시어 그들이 그 진리를 새롭고 아름답게 소개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실물, 127)

## 6. 옛 진리와 새 진리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구속의 경륜은 어떻게 언제나 새롭게 될 수 있는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 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릇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마 13:52)

---

“최초에 에덴동산에서 구속의 약속이 발표된 이후로 그리스도의 생애와 품성과 중보 사업은 사람들의 연구 제목이 되어 왔다. 그러나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를 받은 자들은 이 주제를 새롭고 신선한 빛으로 전하였다. 구속의 진리는 끊임없이 발전하고 확산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 진리가 비록 옛 것이긴 하지만 진리를 탐구하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새롭게 되어 더욱 큰 영광과 더욱 큰 권능을 계시하여 준다.

각 시대마다 그 시대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할 새로운 진리의 계시와 하나님의 기별이 있다. 옛 진리는 모두 다 매우 요긴한 것들이다. 새로운 진리는 옛 진리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고 오히려 그 옛 진리를 잘 이해하도록 풀어 준다. 우리는 옛 진리를 잘 이해해야만 새로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부활에 대한 진리를 설명하실 때에도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눅 24:27) 었다. 옛 진리를 더욱 빛나게 하는 것은 그 진리가 새롭게 밝혀지는 가운데서 비쳐나는 빛이다. 새로운 빛을 거절하고 등한히 하는 사람은 실제로는 옛 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이다. 그러한 사람에게는 그 진리가 생명

력을 잃고 생기 없는 형식이 되고 만다.”(실물, 127, 128)

“영원한 왕국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 눈이 열렸더라면 능히 깨달을 수 있었을 것들을 배우게 될 것이다. 구속이라는 주제는 영원한 시대를 통하여 구속받은 자들이 마음과 정신과 언어를 총동원해서 배워야 할 문제가 될 것이다. 그들은 전에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알려 주시고자 하셨으나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깨닫지 못했던 진리들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영원한 시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완전무결하심과 그의 영광이 더욱 새롭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무궁한 세월을 통하여 신실한 집주인은 곳간에서 새것과 옛것을 꺼내실 것이다.”(실물, 134)

##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 7.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은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마 24:4)

---

“사단은 지상에 다가오고 있는 전반적 멸망에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이 포함 되기를 바란다. 그리스도의 오심이 가까워질수록 그들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더욱 확고하고 결정적인 노력을 할 것이다. 남녀들이 일어나 옛 지계표를 믿는 믿음을 어지럽게 하는 경향을 가진 어떤 새로운 빛 혹은 계시를 가졌노라고 공언할 것이다. 그들의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속임을 당할 것이다. 거짓 소문들이 유포될 것이며, 어떤 사람들은 이 올무에 걸리게 될 것이다. 그들은 이러한 소문들을 믿고 그것들을 다시 전하는 일을 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과 대 기만자가 연결 짓는 하나의 사슬이 형성될 것이다. 이런 정신은 하나님께서 보내 주시는 기별을 공공연하게 반대함으로써만 반드시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방면으로 뚜렷한 불신은 나타나게 된다. 거짓된 진술이 있을 때마다 이와 같은 불신은 배양되고 강화된다. 그리하여, 이같은 수단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은 그릇된 방향에서 방황하게 된다.”(2보감, 107)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백성의 경험에서 실현되지 못하면 거짓 이론과 그릇된 사상이 마음을 사로잡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는 많은 사람

들의 경험에서 사라지고 그들의 믿음은 능력과 생기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와 같은 사람들은 매일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살아있는 체험을 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열심을 내어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은 라오디게아 교회로 상징된 사람들에게 속하게 되어 하나님의 입에서 토하여 냄을 당할 것이다.”(리뷰, 1889.9.3)

8.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론이 아니라 하나의 체험, 곧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하나의 중대한 변화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 2:20)

---

“전체적인 그리스도인 은혜와 체험 문제의 본질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그의 아들을 아는 것에 포함되어 있다. 신앙은 심령에 그리스도께서 내재하심을 의미한다. 그리고 … 계속하고 은혜 중에 항상 자라고 항상 계속하여 완전케 이르게 된다.”(리뷰, 1892.5.24)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한 교리와 이론을 제시하지마는, 그들의 설교는 맛을 잃은 소금과 같다. … 왜냐하면 그들의 모든 활동에 역사하고 있는 원칙이 없고, 그들은 그리스도께로 영혼들을 인도하는 일에 실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하고 있지 않다. 그것은 그들이 입고 있지 않은 옷이요, 깨닫고 있지 못한 부요함이며 마시지 못한 샘물이다.”(리뷰, 1892.11.29)

“우리는 정확한 교리를 가지고 있고 거짓 교리를 미워함과 동시에 원칙에 진실하지 못한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불굴의 노력으로 일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으로도 충분치 못하다. … 진리의 이론을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 신조를 불신자들에게 제시하는 일이 그대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만들어주지는 않는다.”(리뷰, 1891.2.3)

“우리가 냉랭한 진리의 이론을 증거하는 일에 만족해 온 것이 우리의 사업에 문제가 되어 왔다”(리뷰, 1889.5.28)

## 견고한 토대

### 9.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안전한 토대 위에 서 있을 수 있는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마 7:24, 25)

마 7:26, 27.

---

“그들은 하나님의 기초가 확실하게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을 진실하신 분으로, 모든 사람을 거짓말쟁이로 여기라. 그들의 유일한 안전은 그들의 발을 견고한 토대 위에 놓고, 셋째 천사의 기별을 깨달아 이해하고, 진리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이다.”(1증언, 323)

### 10.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이 견고한 토대인가?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 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사 28:16)

---

“정직한 사람들은 현대 진리의 일관된 연결성을 깨달을 것이다. 그들은 그 진리의 조화로운 연결, 곧 차례로 사슬이 지어져 하나의 전체로 통일되어 있는 것을 깨닫고, 그 진리를 굳게 붙들게 될 것이다. 현대 진리는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백성은 이 중요하고 견고한 토대 위에서 연합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분께서는 흩어 버리고 분열시키기 위하여 여러 가지 다른 믿음과 견해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이용하지 않으실 것이다. 하늘과 거룩한 천사들은, 한 단체로 연합시키고 믿음의 연합을 이루어 주기 위하여 활동하고 있다.”(1증언, 326)

“우리의 믿음의 항목들이 이렇게 확립되면서 우리의 발은 견고한 토대 위에 세워지게 되었다. 성령의 증거 아래 우리는 진리를 한 항목씩 받아들였다.”(3기별, 32)

“나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듣고 받아들이고 주장해 온 확실한 진리에 관하여 분명하고 견고한 믿음을 갖기를 탄원한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모든 내용들은 분명한 것이다. 영원한 진리의 토대 위에 발을 굳게 놓으라.” (전도, 362)

“그대들은 여기저기로 휩쓸리지 않고 견고한 토대 그리스도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것이다.”(2설교, 111)

## [상고할 말씀]

“하나님께서서는 모든 참된 정서가 지배하도록 하실 것이다. 사단은 많은 영혼들과 생명의 장난을 기술적으로 할 수 있으며, 아주 비밀리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을 파손시키고 그들을 좌절시키는 방법으로 활동한다. 그리고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많은 이들이 하는 것처럼 사단의 술책으로 인해 배교로 이끌어지면 대적은 큰 승리를 얻게 된다. 그는 하늘에서 했던 것처럼 오늘날 행하고 있으며, 이 지상 역사의 마지막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분열시키기 위해 일한다. 그는 불화를 일으키기 위해 찾고 있으며, 불만과 논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진리의 옛 지계표를 가능하면 제거하기 위해 애쓴다. 그는 주 여호와께서 그분 자신에게 모순이 되는 것처럼 나타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2설교, 276)

“사단은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이 세상에 닥치고 있는 전체적인 멸망에 포함되기를 바란다. 그리스도의 강림이 가까워짐에 따라 그는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해 더욱 단단한 결심을 하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옛 지계표에 속한 믿음을 불안하게 할 어떤 새로운 빛이나 계시를 가졌다고 공언하는 남녀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들의 교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시험을 견디지 못할 것이지만 사람들은 기만을 당할 것이다. ... 거짓 소문이 떠돌 것인데 어떤 사람들은 이 함정에 빠질 것이다. ... 사단이 사람들을 진리로부터 이탈시키고자 계속 애쓰고 있으므로 우리가 모든 형태의 죄에 대해 아무리 경계한다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마라나타, 64)

## 성결의 열매

[연구범위]

정로의 계단 57~65; 믿음과 행함, 29~33.

**기억절** : “그 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모든 솔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속 14:20)

**서론** : “그들은 성결의 모양을 유지하는 일에는 열성적이었으나 심령의 성결은 무시하였다. 그들은 율법의 자의(字義)는 엄하게 지켰지만 그 정신은 늘 범하고 있었다. 그들이 크게 필요로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바로 그 변화 곧 새로운 도덕적 탄생, 죄로부터의 정결함, 지식과 성결의 쇄신이였다.”(소망, 173)

### 성결, 경건

#### 1. 성결 또는 경건이란 무엇인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약 1:27)

“성결이란 황홀경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완전한 복종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요, 하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요, 빛 가운데처럼 시련과 어둠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요, 보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요,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사랑을 신뢰하는 것이다.”(행적, 51)

2. 오늘날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에게 성결은 왜 중요한가? 오늘날 믿노라고 자칭하는 백성들에게서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에 대하여 토의하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딤후 3:5)

---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현대 기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 기별은 하나님의 신임장을 갖고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결이란 열매를 맺기 때문이다 저들에게 증거된 고귀한 진리를 크게 필요로 하면서도 그 기별의 혜택을 받지 못한 자들이 있다. 저들은 저희 마음 문을 활짝 열어 예수님을 하늘의 손님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큰 손실을 당하게 되었다. 사실상 우리들이 걸어가야 할 길은 좁은 길이며 매 발자국마다 십자가가 나타나 있다. 우리들은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렇게 할 때에 의의 태양이신 주님의 복스러운 빛으로 말미암아 가장 암담한 시간들이 환하게 밝아질 것이다.”(리뷰, 1889.9.3)

## 대속죄일 - “여호와께 성결”

3. 대속죄일에 지성소에서 봉사하는 대제사장은 어떤 내용이 새겨진 패를 맨 관을 쓰고 봉사하였는가?

“너는 또 정금으로 패를 만들어 인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끈 전면에 있게 하라”(출 28:36, 37) 출 39:30.

---

“대제사장의 관은 흰 세마포 두건으로 만들었으니 거기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긴 금판이 청색 끈으로 매여 있었다. 제사장들의 복장과 태도에 관한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분에 대한 예배의 신성함과 그분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성결함을 깨닫고, 보는 사람에게 감명을 줄 만한 것이라야 하였다.”(부조, 351)

4.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인 관을 쓰고 지성소에서 봉사하는 것은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고전 3:9)

---

“그리스도는 육체적, 지적, 도덕적 힘을 합한 전인적 봉사를 요구하신다. 이것들이 모두 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동원되어야 한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모든 소유권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며, 그가 하나님의 군대에 동원되기 전에 그가 추구하는 일들은 그 일 자체가 갖고 있지 않는 거룩함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 여호와께 성결이란 말씀이 그러한 사람의 모든 행동에 새겨져야 한다. 왜냐하면 그의 전 존재는 하나님의 지배 하에 있기 때문이다.”(화잇주석, 고전 3:9-15)

“오늘날 우리는 대속죄일에 살고 있다. 표상적 의식에서,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속죄의 봉사를 하는 동안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겸손한 태도로써 그들의 심령을 괴롭게 해야 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었다. 그와 같이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서 도말되기를 원치 아니하는 모든 사람은 그들의 은혜의 시기가 얼마 남지 아니한 오늘날 죄를 슬퍼하고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심령을 괴롭게 해야 한다. 그들은 심각하고 철저히 마음을 살피야 한다.”(쟁투, 489)

## 성결케 하는 능력

5. 빛째 계명인 안식일을 거룩하게 준수하는 자들은 어떤 축복을 받을 것인가? 어떤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으며, 그 결과는 무엇인가?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었노라”(겔 20:12)

---

“안식일은 그리스도를 창조자와 거룩하게 하시는 분으로 가리킨다. 안식일은 하늘과 땅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붙드시는 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과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확복하게 된다는 것을 선

언한다.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겔 20:12)었다고 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의 표징이다. 그리고 안식일은 그리스도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다. 안식일은 그리스도의 성결하게 하시는 능력의 표징으로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한 이스라엘의 일원이 되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소망, 288)

“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하였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명령이 이스라엘에게 내려졌을 때에 여호와께서는 또한 그들에게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라고 말씀하셨다(출 20:8, 22:31). 이렇게 되어야만 안식일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경배자로 구별(區別)할 수 있었다.”(소망, 283)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주의 안식일을 양심적으로 지키는 사람들에게 찍힌다(리뷰 1897.7.13).”(화이트주석, 계 14:9-12)

6.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준비가 요구되는가? 주님께서 말하는 말세에 무엇을 보기를 원하시는가?

“의의 법을 좇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롬 9:31, 32)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눅 18:8)

“하늘에 들어가는 유일한 자격으로서 항상 ‘완전한 의’를 요구하신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이요, 피난처이시다. 그의 의는 순종하는 자에게만 입혀진다.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아무 죄도 찾아볼 수 없게 하자. 그러나 거룩한 율법을 짓밟는 사람들은 그 의를 주장할 권리가 없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로서 한없이 큰 구속의 경륜을 볼 수 있고, 우리의 속죄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란다(리뷰 1886.9.21).”(화이트주석, 롬 3:31)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랑에 대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 있음을 안다. ... 그리스도의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자유와 성령의 안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영생에 대한 확실한 보증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 잔치 곧 하늘 잔치를 준비하시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지 않으신 일이 또 무엇이 있겠는가?”(실물, 317)

“혼인 잔치에 오라는 초청을 받고서도 그를 위하여 구입해 둔 혼인 예복, 곧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지 않은 자를 취급한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분명하게 묘사되어 있는가! 그는 자기의 더러운 옷이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기에 충분할 만큼 좋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주님을 모독하고, 그분의 은혜로운 자비를 멸시한 자로 쫓겨나게 되었다.”(5증언, 509)

## 구속의 첫 열매

### 7. 주님께서 마련하신 구속의 경륜에서 누가 첫 열매가 되셨는가?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고전 15:23)

“바울은 주님의 부활과 그분의 백성들의 부활을 말하면서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고전 15:23)라고 한다. 추수하기 전에 거두어 요제(搖祭)로 드려진 처음 익은 곡식 단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장차 부활의 때에 하나님의 창고에 들어가게 될 구속 받은 자들의 영원한 추수에 있어서 처음 익은 곡식이시다.”(쟁투, 399)

“우리 주님께서서는 요제의 곡식단이 표상한 실체(實體)로서 제 삼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고전 15:20), 곧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빌 3:21)실 분으로서, 또한 모든 의인들의 견본으로 부활하셨다.”(쟁투, 399)

### 8.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은 누구이며, 그들의 수효가 차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계 14:4)

---

“사단이 비난을 퍼붓고 있는 동안 눈에 보이지 않는 거룩한 천사들은 여기 저기를 왕래하면서 충성스러운 사람들에게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고 있었다. 이들은 어린양과 함께 시온산에 설 사람들인데 그들의 이마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들은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를 것인데 그 노래는 땅에서 구속함을 입은 십사만 사천명 밖에는 배울 수 없는 노래이다. ‘이 사람들은 … 어린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계 14:4, 5).”(선지, 591)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회 안에 당신을 나타내 보이기를 간절히 바라신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분의 백성들 속에 완전하게 재현될 때에 그분은 당신의 것을 찾으시려고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이다.”(실물, 69)

## 구속의 완성

9.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속의 경륜의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대쟁투의 주요 쟁점은 무엇이었는가?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매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히 2:14)

“…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요일 3:8)

---

“하나님의 율법은 변경이 필요 없을 만큼 완전하므로, 죄악적인 사람이 스스로의 힘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표준에 도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구속주로 오신 이유였다. 예수님의 사명은 사람들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만들어 하늘의 율법의 원칙과 조화되게 하는 것이었다. 우리가 죄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 율법은 높여진다. 사

도 바울은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로마서 3장 31절)고 말한다.”(보훈, 50)

“대쟁투는 최초부터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것이었다. 사단은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며, 그분의 율법에 결함이 있고, 우주의 행복을 위하여 그것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써왔다. 율법을 공격함으로써 그는 그 율법의 제정자의 권위를 뒤집어엎으려고 하였다. 그 대쟁투에서 하나님의 율례에 결함이 있어 변경해야 되는지 혹은 완전하여 변할 수 없는 것인지가 나타나게 될 것이었다.”(부조, 69)

### 10. 셋째 천사의 기별이 마쳐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계 22:11)

마 6:10.

---

“셋째 천사의 기별이 마쳐지면 세상의 죄인들을 위한 자비의 탄원은 더 이상 없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사업을 다 이루었다. 그들은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행 3:19)라는 ‘늦은 비’(호 6:3)를 받았으므로 그들 앞에 있는 시련의 때를 위하여 준비를 갖추었다. 천사들은 하늘에서 분주히 왕래하고 있다. 지상에서 돌아온 한 천사는 그의 일이 마쳐진 것을 보고한다. 마지막 시험이 이미 세상에 주어졌고 하나님의 계명에 충성한 것이 입증된 사람들은 모두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계 7:2)을 받았다. 그 때에 예수님께서서는 하늘 성소에서 당신의 중보 사업을 그치신다. 그분께서는 손을 들어 큰 음성으로 ‘되었다’(계 16:17)고 말씀하신다.”(쟁투, 613)

“한 천사가 잉크 통(빨로 만든)을 가지고 지구에서 돌아와 예수님께 자기의 일이 끝났음을 보고하고 성도들의 수가 차서 인치는 사업이 마쳤음을 보고했다. 그러자 나는 십계명이 들어 있는 법궤 앞에서 봉사하시던 예수께서 향로를 내던지시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의 손을 치켜들고 ‘다 이루었다’하고 큰소리로 부르짖었다. 그리고 예수께서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초기, 279)

## [상고할 말씀]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가기 전에 구주께서는 당신을 따른 자들에게 승리의 휘장을 주시고 왕족으로서의 신분의 표를 주신다. 그 광휘 찬란한 행렬은 그들의 왕 주위에 둥그렇게 둘러선다. 주님은 모든 성도와 천사들보다 더욱 위엄이 있고 큰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분의 얼굴에서 흘러나오는 빛은 온화한 사랑으로 넘친다. 구원받은 셀 수 없이 큰 무리들은 모두 주님을 주목하고 일찍이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던 주님의 영광을 쳐다본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오른손으로 승리자들의 머리에 영광의 관을 씌워주신다. 각 사람에게 관이 주어지는데, 거기에는 ‘새 이름’이 새겨져 있고,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모든 사람의 손에는 승리의 종려가지와 빛나는 거문고가 쥐어진다. 그리하여 지휘하는 천사가 음을 맞추자 모든 손은 훌륭하게 거문고를 켜게 되고, 아름답고 풍부한 음조가 흘러나오게 된다. 모든 사람의 마음은 말할 수 없는 감격에 사로잡혀 모두 감사의 찬미를 부른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계 1:5, 6).”(쟁투, 645)

## 역사로부터 배울 교훈

[연구범위]

실물교훈, 296~306; 각 시대의 대쟁투, 17~38.

**기억절** :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롬 15:4)

**서론** : “이 마지막 날의 그리스도인의 경험은 고대 이스라엘의 여행과 매우 유사하다. 고린도전서 10장을 읽되, 특별히 6절에서 15절까지 읽어보라.”(1증언, 284)

### 역사는 반복됨

1. 성경은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확실히 가르쳐주고 있는가? 옛날 엘리야의 시대와 비교하여 토의해보라.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전 1:9)  
약 5:17.

“역사는 반복된다. 오늘날의 세계에도 아합과 이세벨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 현대도 엘리야가 살던 시대와 똑같은 우상숭배의 시대이다.”(선지, 177)

## 2. 그리스도 당시의 유대교회의 상태로부터 어떤 심각한 경고를 취해야 하는가?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마 23:1-3)

---

“그리스도의 시대에 사람의 마음의 가장 큰 기만은 진리에 동의만 하면 의가 성립된다는 생각이었다. 모든 사람의 경험으로 보아 진리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은 영혼을 구원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그것은 의의 열매를 맺지 아니한다. 신학적 진리라고 불리우는 것을 너무 중요시함으로 생애 가운데 나타난 참된 진리를 증오하는 일이 자주 있다. 가장 어두운 역사의 장(章)들은 완고한 종교가들이 범한 죄악의 기록으로 채워져 있다. 바리새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을 자랑하였으나 이런 유리한 지위가 저희를 이기심과 악의와 이득에 대한 탐심과 비열한 위선을 막아주지는 못하였다. 그들은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신앙인이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의 말하는바 소위 정통적인 신앙은 저희로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였던 것이다.

같은 위험이 지금도 존재한다.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어떤 신학적 교의(敎義)에 동의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당연히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들은 진리를 실생활에 실천하지 않았다. 그들은 진리를 믿고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성결하게 하는 진리를 통하여 오는 능력과 은혜를 받지 못하였다. 사람들은 진리를 믿노라고 공언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저희를 진실하고 친절하고 참고 관용하고 거룩한 마음을 갖도록 하지 못한다면 그러한 신앙을 소유한 자들에게 저주가 되고 그들의 감화로 말미암아 그것은 세상에 저주가 된다.”(소망, 309, 310)

## 하나님의 약속은 조건적임

3.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한 은총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릇되게 해석했다. 동일한 잘못이 삼중기별을 믿는 신도들에게 어떻게 반복될 수 있는가?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롬 15:4)

---

“하나님의 율법이 그 마음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은총이 약속되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연합한 자이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에게서 떠났다. 그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고통을 겪고 있었다. 그들이 이방 나라에 잡혀 가서 종살이 하게 된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 그들의 마음은 범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졌으며 과거에 여러 번 주께서 그토록 큰 은총을 나타내 보여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죄를 변명했다. …

이런 일들은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고전 10:11)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그릇되게 해석하고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선행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다고 자만하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소망, 106)

“축복과 저주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놓여 있다. 그러므로, 그들이 세상에서 나와서 세상과 분리되어 겸손하게 순종의 길을 걸을 것 같으면 축복을 받고, 그들이 고상한 하늘의 요구를 짓밟는 우상 숭배자들과 연합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1증언, 609; 1867년)

#### 4.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어떤 말씀들이 현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경고가 되고 있는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호 4:6)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관계 없는 것으로 여기도다”(호 8:12)

---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에 유의하지 아니하고 지나쳐 버릴 것인가? 봉사의 기회를 이용하지 않을 것인가? 세상의 조롱, 교만심과 사람의 풍습과 유전을 본받는 정신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을 사로잡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할 것인가? 그들이 유대 나라 지도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결과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오늘날의 교회가 경고를 받을 것인가?”(실물, 306; 1900년)

## 고대 이스라엘의 발자취를 따름

5. 어떤 관점에서 고대 이스라엘의 불순종은 현대 이스라엘에게도 경고가 되는가?

“유대인이라 칭하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롬 2:17, 23, 24)

사 29:13.

---

“고대 이스라엘의 죄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무시하고 성화되지 못한 마음이 이끄는 대로 그들 자신의 길을 따른 데 있었다. 현대 이스라엘은 그들의 발자취를 신속히 따르고 있다. 그러므로 주님의 불쾌히 여기심이 분명히 그들 위에 머물러 있다.”(5증언, 94; 1882년)

“위대한 사업의 중심부에서 하나님의 사업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한 가장 열렬한 경계가 나타나지 않으면, 교회는 다른 교단들의 교회들처럼 타락할 것이다.”(4증언, 513; 1880년)

6. 애굽의 유혹에 관하여 고대와 현대 이스라엘 사이에 어떤 유사점이 보여질 수 있는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행하여”(행 7:37-39)

---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을 달아 버리지 않으셨지만, 우리 자신의 계속적인 배교의 행동이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켰다. 교만과 탐욕과 세상을 사랑하는 정신은 추방이나 유죄 선고에 대한 두려움 없이 마음속에 간직되어 왔다. 비통하고 참람된 죄악들이 우리들 사이에 존재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

반적인 견해는 교회가 번영하고 있다는 것과 교회의 모든 영역에는 평안과 영적 번영이 있다는 것이다.

교회는 그 지도자 되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서 돌아섰고 꾸준히 애굽을 향하여 퇴각하고 있다.”(5증언, 217; 1882년)

## 영적 소경

7. 그리스도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의 영적 상태는 어떠하였는가? 왜 그들은 소경임에도 하나님 앞에 죄가 있었는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 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제 있느니라”(요 9:39-41)

.....

“예수의 청중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자신들에게 적용됨을 느끼고 ‘우리도 소경인가’라고 물었다. ‘너희가 소경 되었다면 죄가없으’리라고 예수께서는 대답하셨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대들에게 진리를 볼 수 없게 하셨다면 그대들의 무식은 죄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본다고 하니’. 그대들은 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믿으면서 시력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거절한다. 부족을 인식한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서는 무한한 도움을 가지고 오셨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부족을 고백하려고 하지 않았으며 그리스도께 나오기를 거절하였다. 그런 까닭에 그들은 그들 자신들의 죄의 탓인 우매함에 빠졌다. 예수께서는 너희 죄가 그제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셨다.”(소망, 475)

8.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 중에는 어떤 영적 질병이 심화되어 왔는가? 영적 소경의 결말은 무엇인가?

“...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계 3:17)

마 15:14.

.....

“시온의 성벽 위에 서 있는 파수꾼들이 눈먼 상태가 되지 않았는가?”(8증

언, 248; 1903년)

“주의 재림을 무관심하게 기다리고 있으면서 공언만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 그들은 그의 의의 옷을 입지 않았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말할지 모르지만, 죄의 씻음을 받지 못했다. 이기적이고 자기 만족에 빠진 자들이다. 그들의 생애에는 그리스도가 없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않는다. 성결이 무엇임을 참으로 알지 못하고 있다. 자신들의 결점들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눈이 멀었기 때문에, 교만과 허물의 간사한 일들을 찾아낼 수 없다. 자기 의의 누더기 옷을 입고 영적인 소경 상태에 있다. 사단이 그들과 그리스도 사이를 어둠으로 가렸으므로, 순결하고 거룩한 구세주의 품성을 연구할 마음이 없다”(리뷰, 1901.2.26)

## 예루살렘의 멸망

9. 한 민족으로서 유대인들은 참된 평화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저주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는가? 1888년 기별을 거절한다면, 어떤 역사가 재현 될 것인가?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기웠도다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 받는 날을 네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눅 19:42-44)

마 23:38.

“유대인들의 큰 죄는 현실의 기회를 등한히 하고 거절한 것이었다. 예수님께서 오늘날 당신을 따르노라고 공언하는 자들을 살펴보실 때, 그분은 비열한 배은망덕, 텅 빈 형식주의, 위선적 불성실, 바리새인적 교만과 배교를 보신다.”(5증언, 72; 1882)

“나는 세상의 정신이 신속히 교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았다. 그대들은 고대 이스라엘이 따랐던 것과 동일한 길을 따르고 있다. 그대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서의 그대들의 거룩한 부르심에서 똑같이 떠나가고 있다. 그대들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동참하고 있다. … 그대들은 그대들의 평화에

관한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들은 신속하게 그대들의 눈에서 숨겨지고 있다. 빛을 따르기를 등한히 하기 때문에, 그대들은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선고하신 유대인들보다 불리한 위치에 놓일 것이다.”(5증언, 75, 76; 1882년)

10. 유대인의 역사에서 진리를 거절한 그들의 불신은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 주고 있는가?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저희를 다 붙이시매 저가 와서 그 성전에서 칼로 청년을 죽이며 …”(대하 36:17)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마 24:2)

---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율법을 지킨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불의에서 떠나기를 요청하신다. 회개하고 즐겨 순종하기를 게을리하는 것은 오늘날 남녀들에게 고대 이스라엘에게 내렸던 것과 같은 중대한 결과를 가져다준다. 여호와의 형벌이 더이상 지체하실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예레미야 시대에 일어난 예루살렘의 황폐는 현대 이스라엘에게 보내는 엄숙한 경고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방편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주어진 권고와 훈계가 아무런 형벌 없이 지나갈 수 없다는 것이다.”(선지, 416)

“하나님께서서는 사람들이 당신을 버리기까지는 결코 어떤 백성이나 개인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다. 외부적인 압력이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을 흐리게 하지 못할 것이다. 순결성과 진리를 실천하는 일을 등한히 함으로 하나님의 영을 근심케 하며 자신의 생애를 약화시킬 것인데 이는 하나님께서 저들 가운데 계셔서 축복하시지 않기 때문이다. 내부적인 부패는 하나님의 경고가 예루살렘에 임하였던 것처럼 이 백성에게도 임할 것이다.”(2기별, 378; 1886년)

## [상고할 말씀]

“엘리아의 시대 이후의 장구한 세월을 통하여 그의 일생의 사업에 대한 기록은 배도 중에서 의를 위하여 서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감명과 용기를 주었다. 그리고 말세를 만난 우리를 위하여 이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역사는 반복된다. 오늘날의 세계에도 아합과 이세벨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 현대도 엘리아가 살던 시대와 똑같은 우상 숭배의 시대이다. 외형적으로는 사당도 보이지 않고 우상은 눈에 띄이지 않지만 무수한 사람들이 이 세상의 신들 곧 부와 명성과 향락과 사람들로 죄된 성향을 따르게 하는 재미있는 우화들을 따르고 있다. 많은 무리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속성에 대해 그릇된 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바알의 예배자들처럼 거짓 신을 충실히 섬기고 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를 끊임없이 반대하는 세력과 연합하고 있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서 인간을 높이게 된다. ...

사단은 남녀들로 하여금 불순종하도록 유혹하는데, 그는 그들이 불순종한다면 그들을 신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자유를 갖게 될 것이라고 약속한다.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에 반대되는 정신 곧 하나님의 계시보다 인간의 지혜를 우상처럼 높이는 정신을 볼 수 있다.”(선지, 177, 178)



## 외방선교사업

**12째 안식일에 읽고 13째 안식일에 드려집니다.**

“복음의 초청은 온 세상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계 14:6)에게 주어지는 기별이다. 경고와 자비가 섞인 마지막 기별은 그 영광으로 온 세상을 환하게 해야 한다. 이 기별은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계급의 사람들에게 주어져야 한다.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셨다.

세상은 복음의 기별을 듣지 못해 멸망하고 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리고 있는 데 사람의 유전이 섞이지 아니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성경 속에 주신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있다. 주께서는 당신의 종들이 당신의 기별을 전하기를 요구하신다. 영생의 말씀이 죄악 중에서 죽어가는 자들에게 전해져야 한다.

길과 산울가로 가라는 명령에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사할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설명되어 있다. 온 세상은 그리스도의 종들의 일터이며 모든 인간 가족은 그들의 회중(會衆)이다. 주께서는 당신의 은혜스러운 말씀이 각 사람의 심령에 깊이 박히기를 바라신다.”(실물, 228, 229) 아멘!

